



(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회

일시 2023년 2월 16일(목) 오전 10-12시

장소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연수실 (4층)

주최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수행기관** (주)지앤컴리서치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 분석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종교사회학)

조사 목적과 의의

- 이 조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지난 2008년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한 이래 일곱 번째로 진행되는 추적 조사 연구로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 파악 및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2008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해 왔다. 2010년까지는 매년 조사를 하다가 2013년부터는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실시되었다.
-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주기적으로 조사한 사례가 별로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신뢰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 있는 조사이고 중요한 자료이다.

조사 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남녀
조사 지역	전국
조사 방법	패널 대상 온라인 조사
표본 규모	총 1,000명 (유효표본)
표본 추출	2022년 12월 주민등록인구통계에 근거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표본 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로 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pm 3.1\%p$
자료 처리 및 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18.0 for Window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3년 1월 11일 ~ 15일(5일간)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설문 취지와 설문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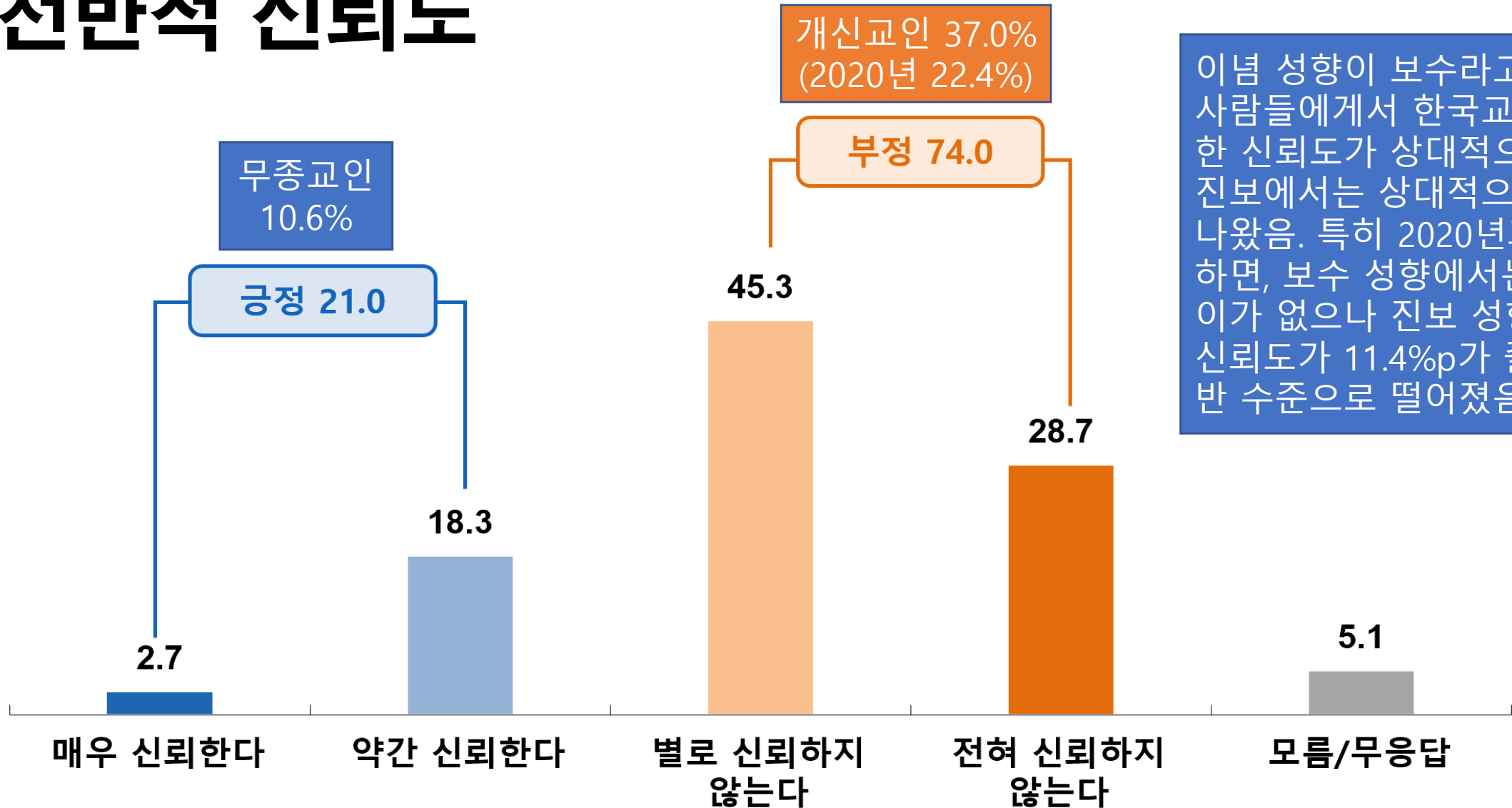
- 설문 문항은 기본적으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하였다. 전체 문항 가운데 대부분은 이전 조사의 결과와 시계열적 비교 분석을 하기 위해서 같은 설문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 조사를 하게 됨에 따라서 필요한 질문들을 추가하였다.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한국교회의 신뢰도
- 종교별 인식 비교
- 종교의 사회 활동에 대한 인식
-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
- 한국교회의 과제
- 교회와 정치
- 종교 중요도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8)	49.8
	여성	(502)	50.2
연령	20대	(159)	15.9
	30대	(149)	14.9
	40대	(186)	18.6
	50대	(197)	19.7
	60대 이상	(309)	30.9
직업	자영업	(150)	15.0
	블루칼라	(293)	29.3
	화이트칼라	(246)	24.6
	가정주부	(185)	18.5
	학생	(53)	5.3
	무직/기타/무응답	(73)	7.3
소득수준	상	(96)	9.6
	중	(374)	37.4
	하	(507)	50.7
	무응답	(23)	2.3
이념성향	보수	(255)	25.5
	중도	(469)	46.9
	진보	(233)	23.3
	잘 모르겠음	(43)	4.3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8.6
	천주교(가톨릭)	(108)	10.8
	불교	(128)	12.8
	기타 종교	(32)	3.2
	종교 없음	(547)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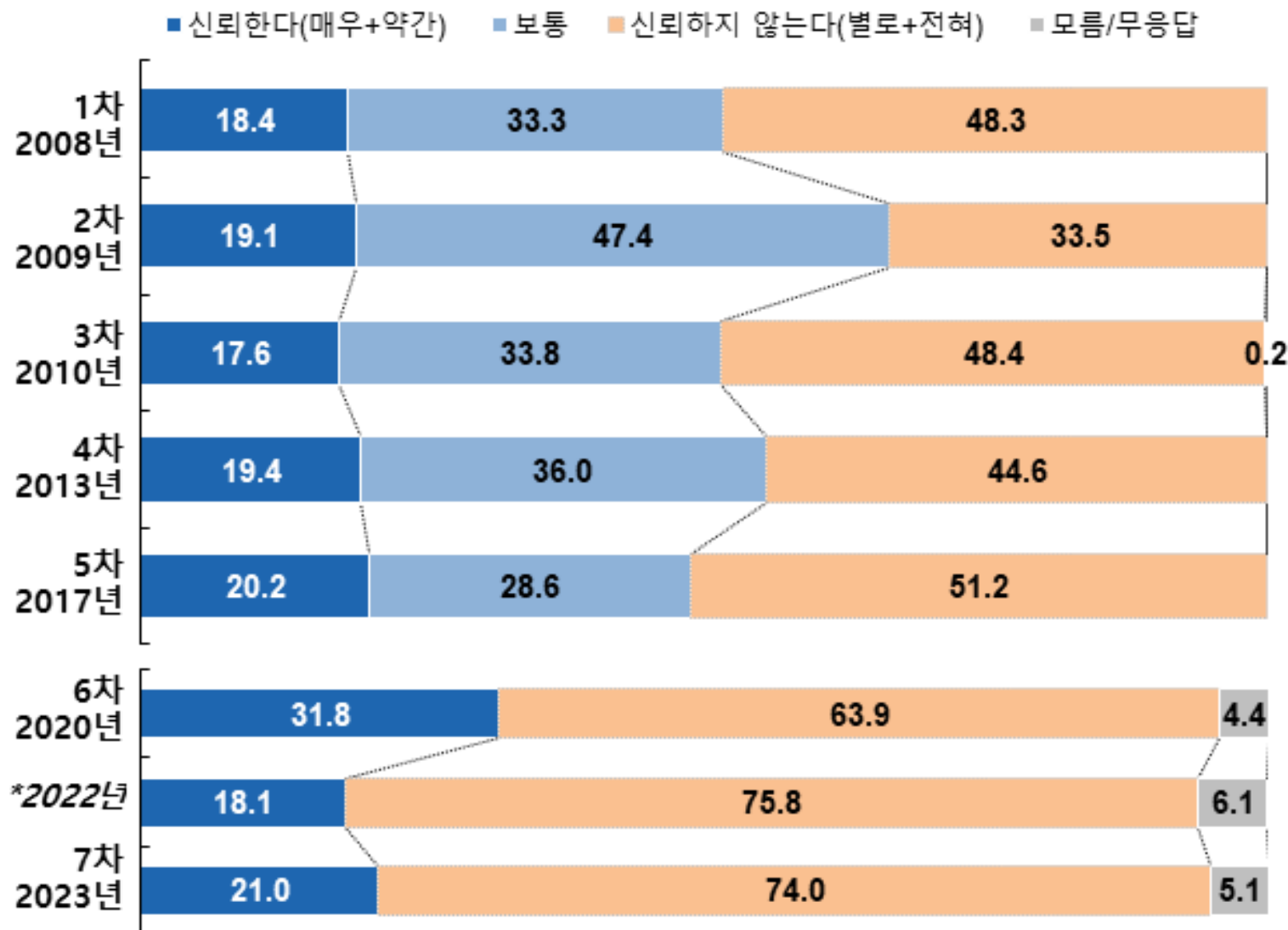
1. 한국교회 신뢰도

전반적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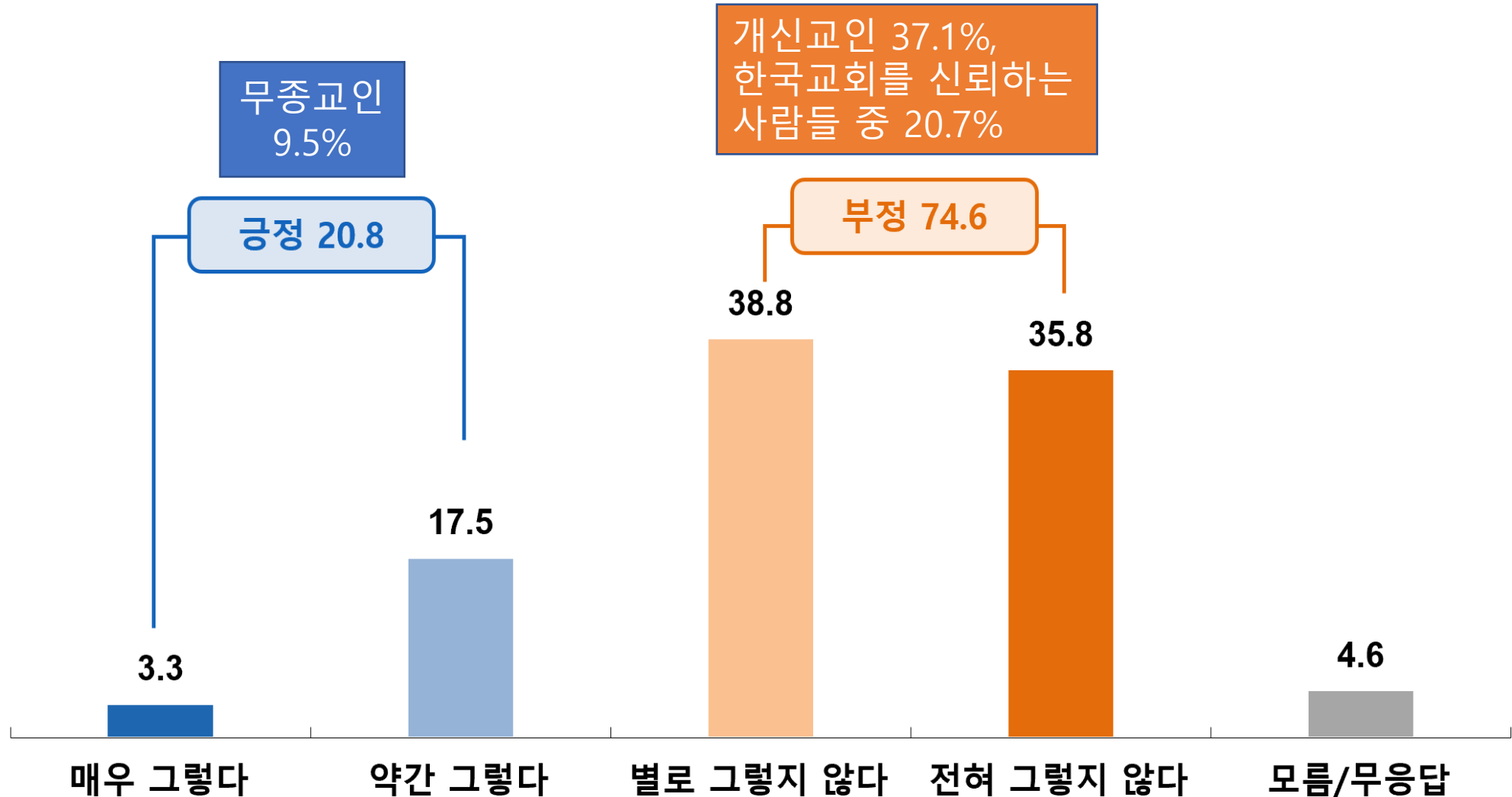
이념 성향이 보수라고 응답한 사람들에게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음. 특히 2020년과 비교하면, 보수 성향에서는 큰 차이가 없으나 진보 성향에서 신뢰도가 11.4%p가 줄어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음.

과거 조사 결과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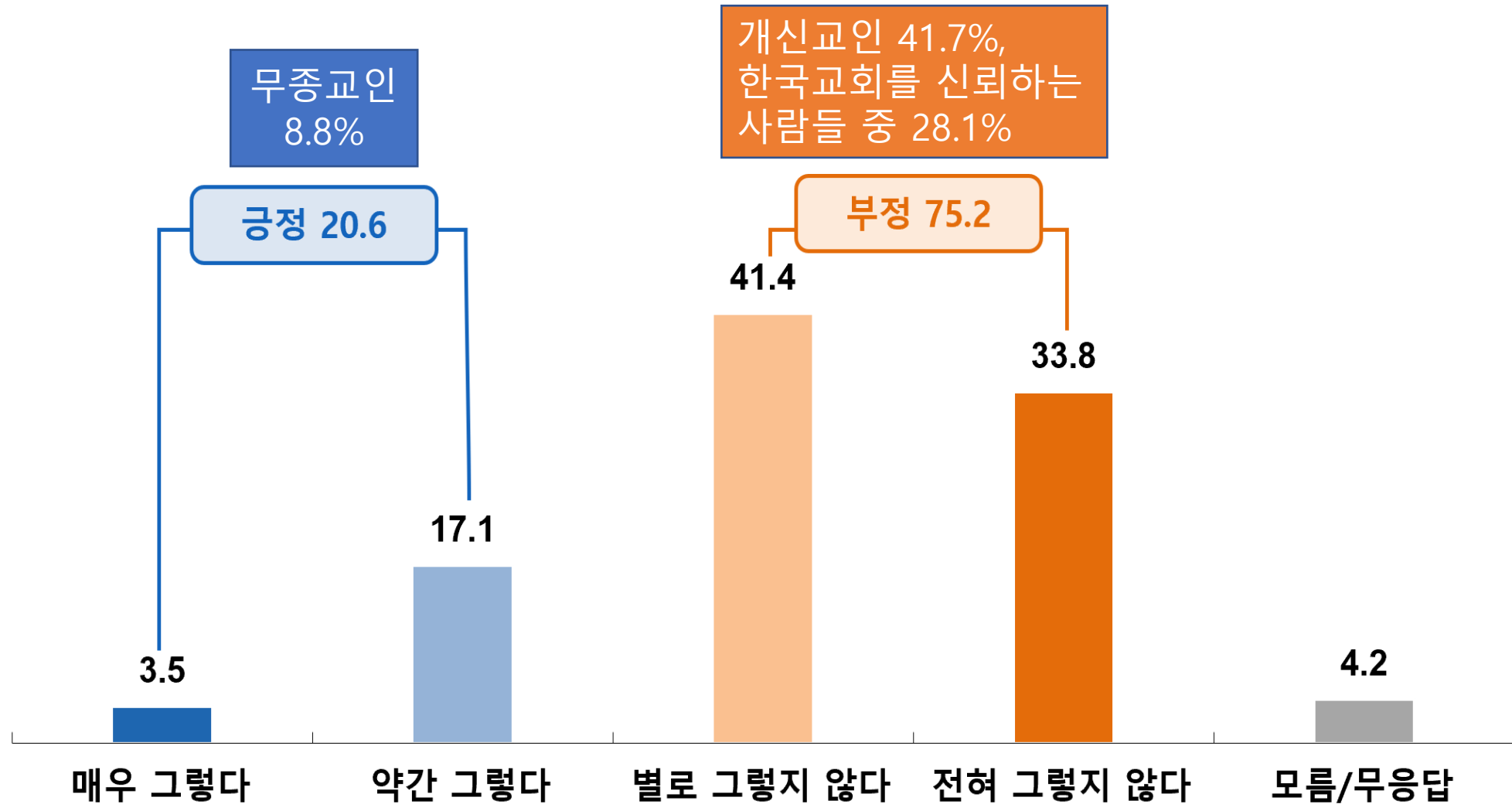


*2022년은 사림과섬김 코디연구소·국민일보,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 2022. 4(만19세 이상 국민 1000명) 결과임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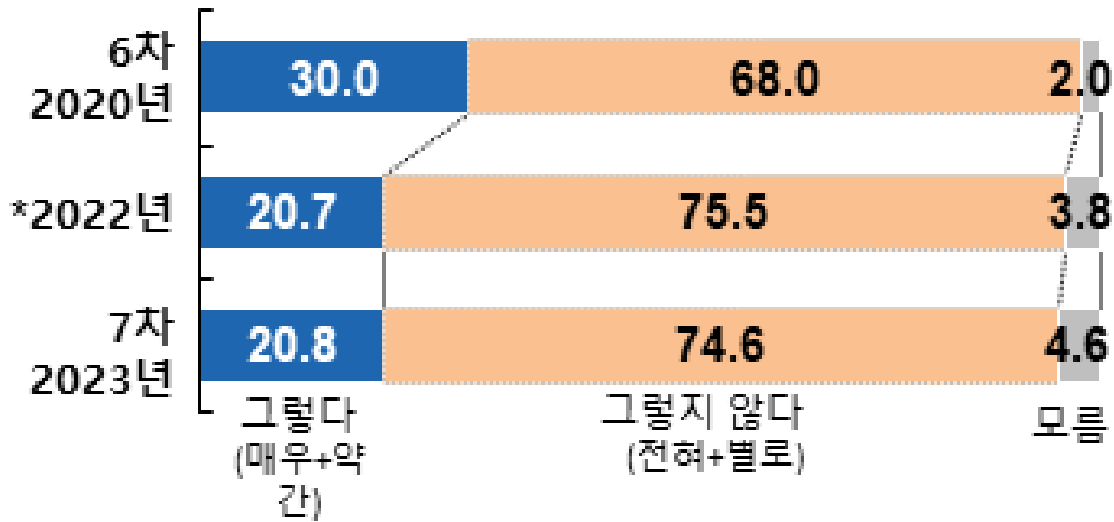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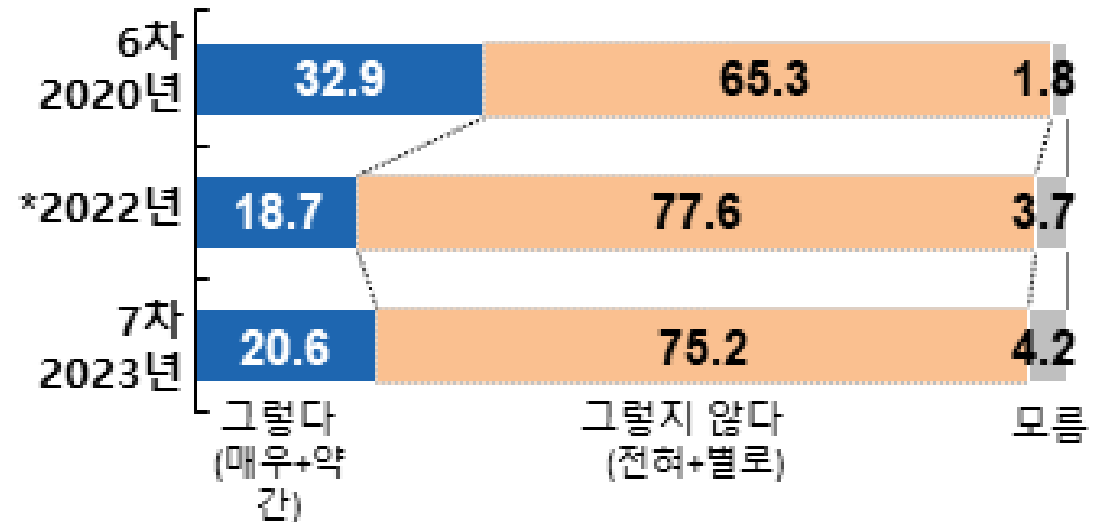


이전 조사 결과와 비교

기독교 목사님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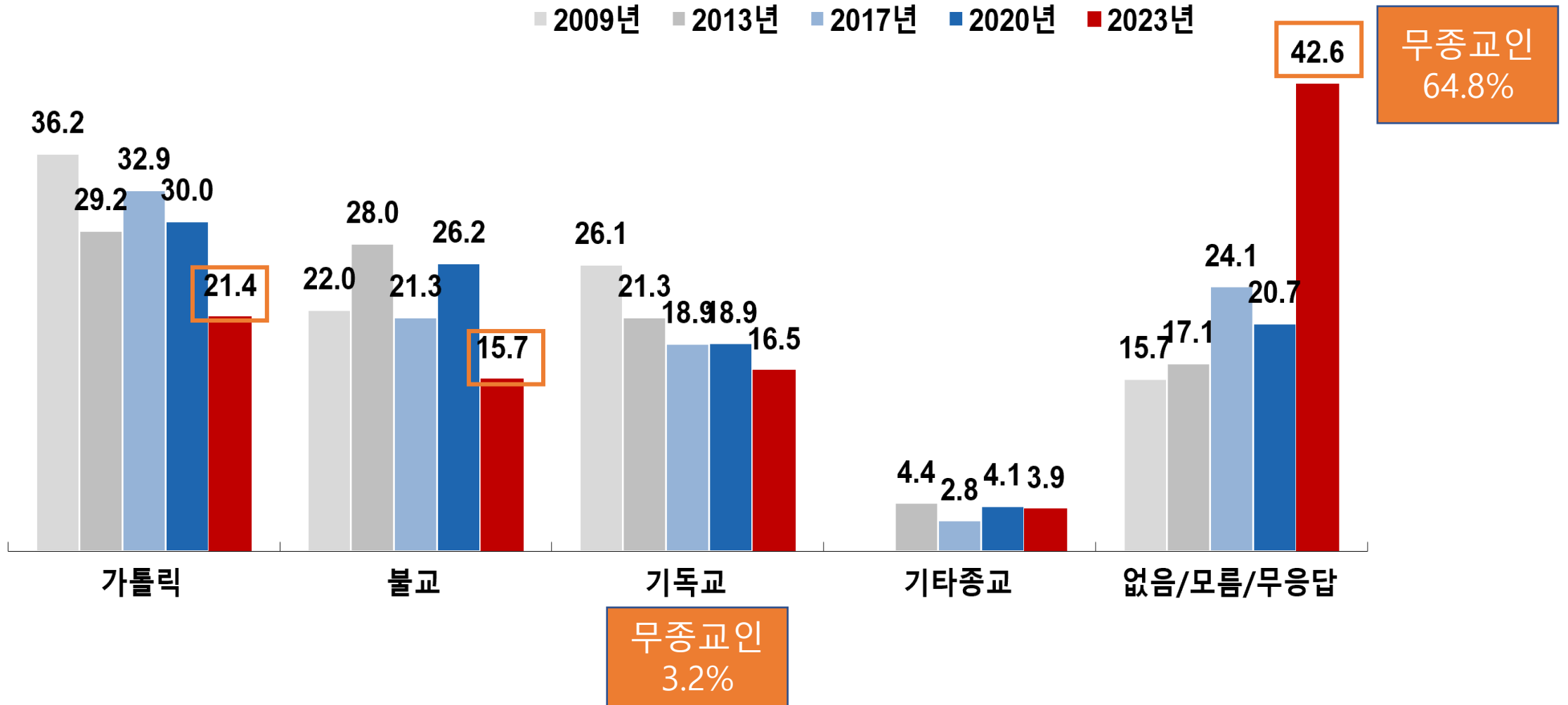


*2022년은 사림과섬김 코디연구소·국민일보, '기독교에 대한 대 국민 이미지 조사', 2022. 4(만19세 이상 국민 1000명)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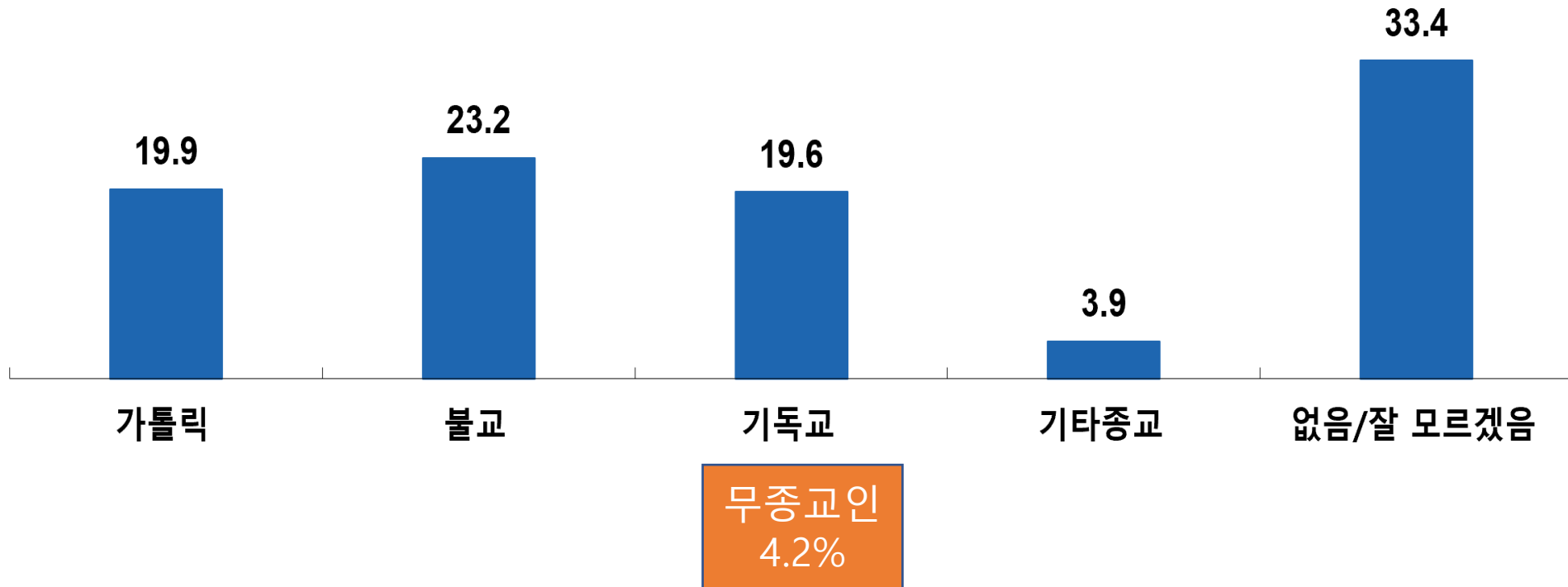
이전 조사에서는 목회자나 신자들에 대해서는 교회보다는 신뢰도가 다소 높게 나와서 다소 추상적인 교회보다 구체적인 개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덜하다고 보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하향평준화'되었음.

2. 종교에 관한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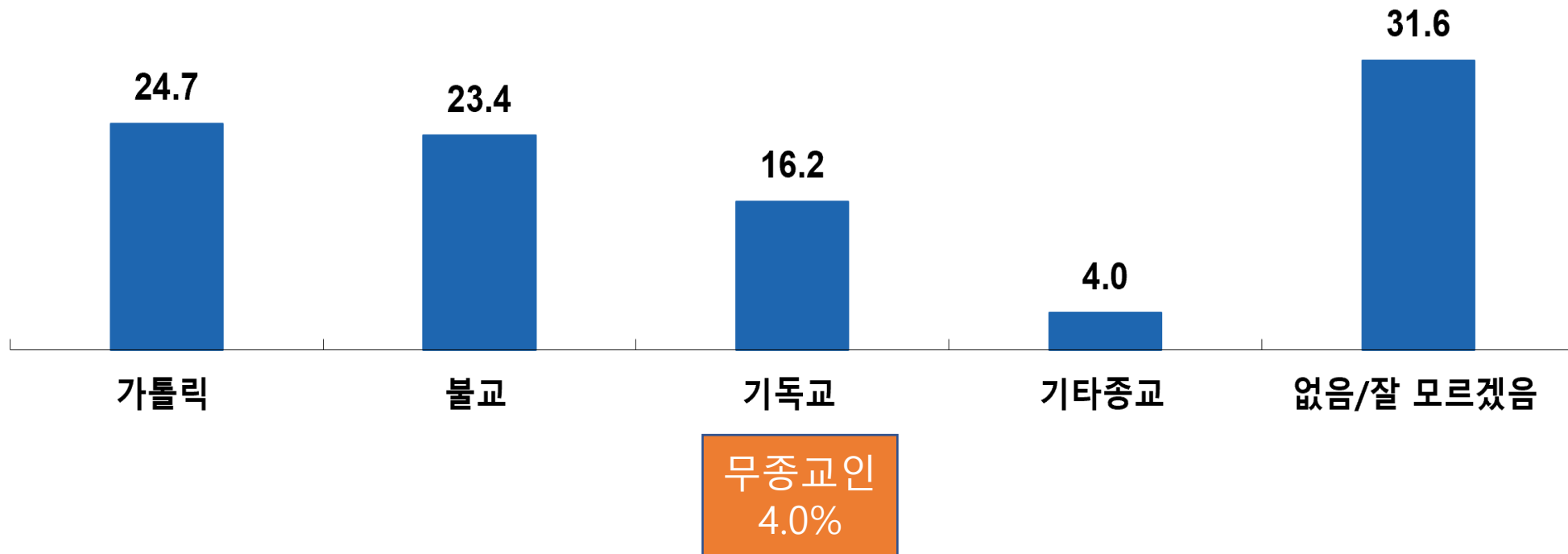
가장 신뢰하는 종교



가장 친근감 있는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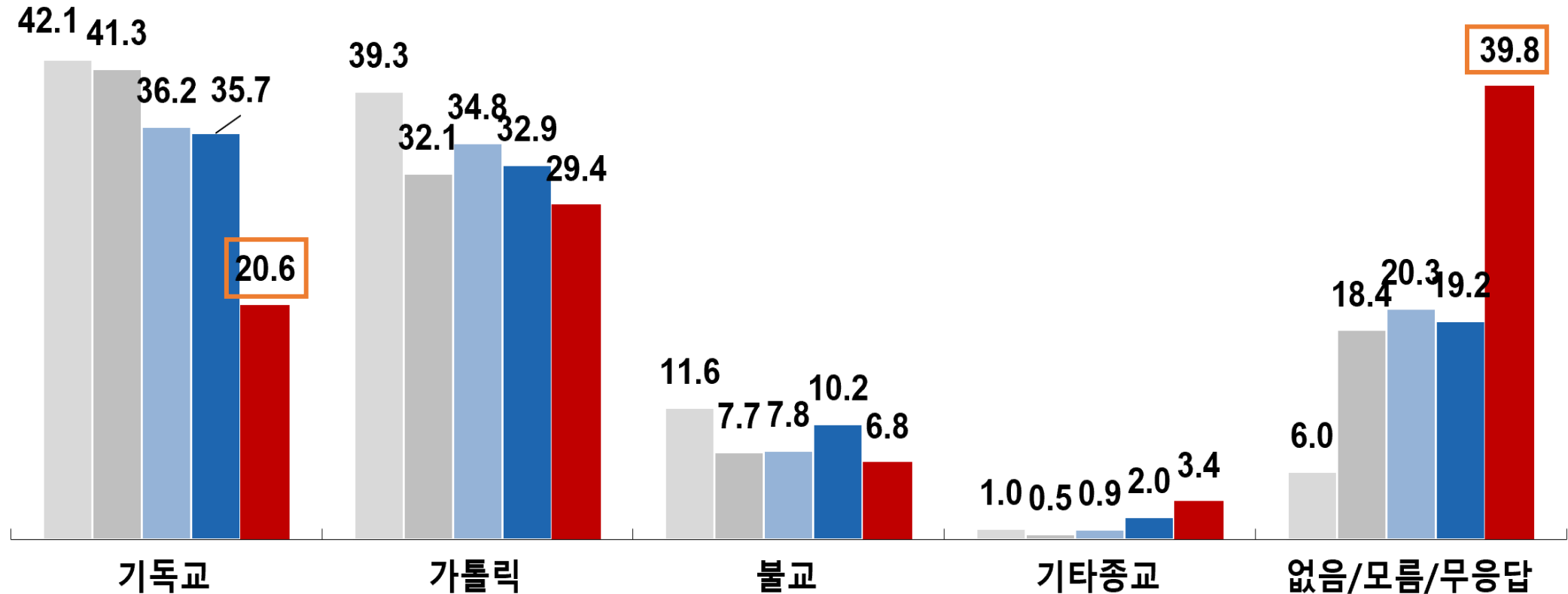
가장 호감 가는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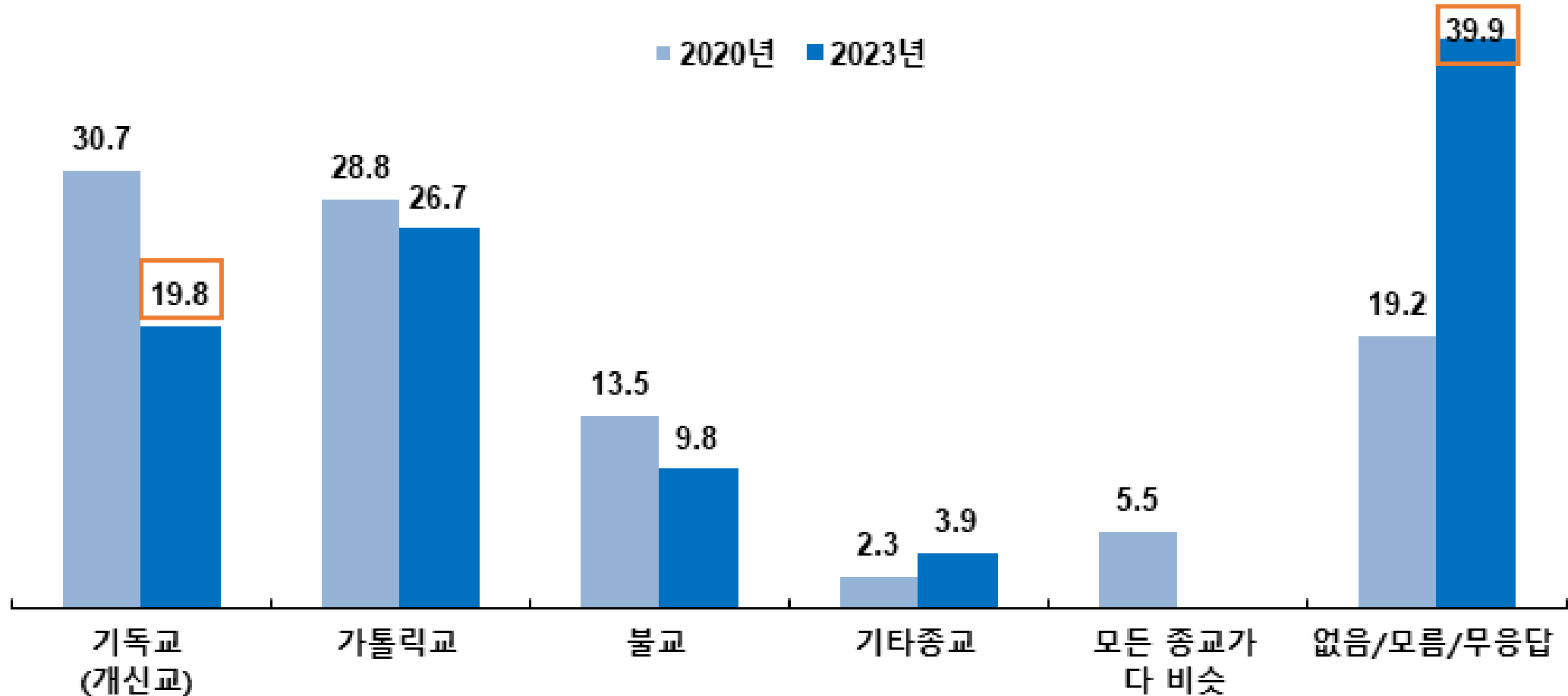
3. 종교의 사회 활동에 관한 인식 비교

사회봉사 활동을 많이 하는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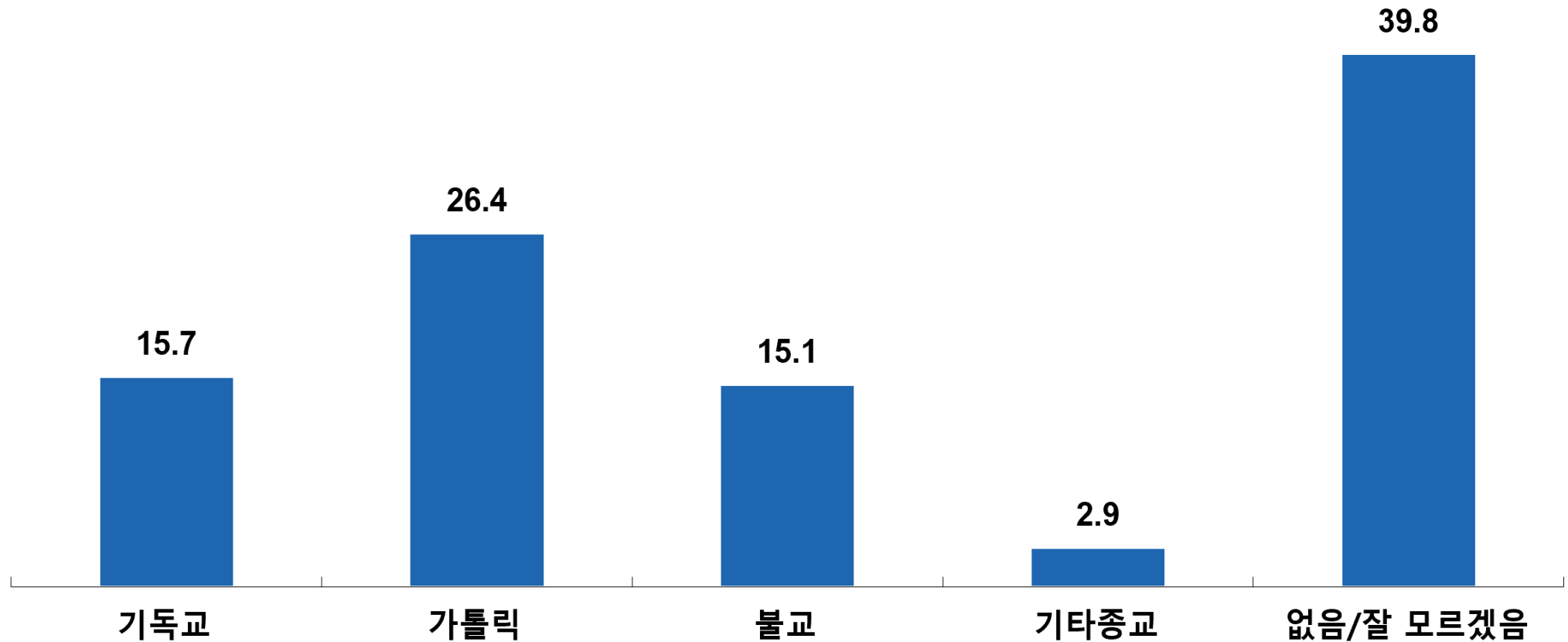
■ 2010년 ■ 2013년 ■ 2017년 ■ 2020년 ■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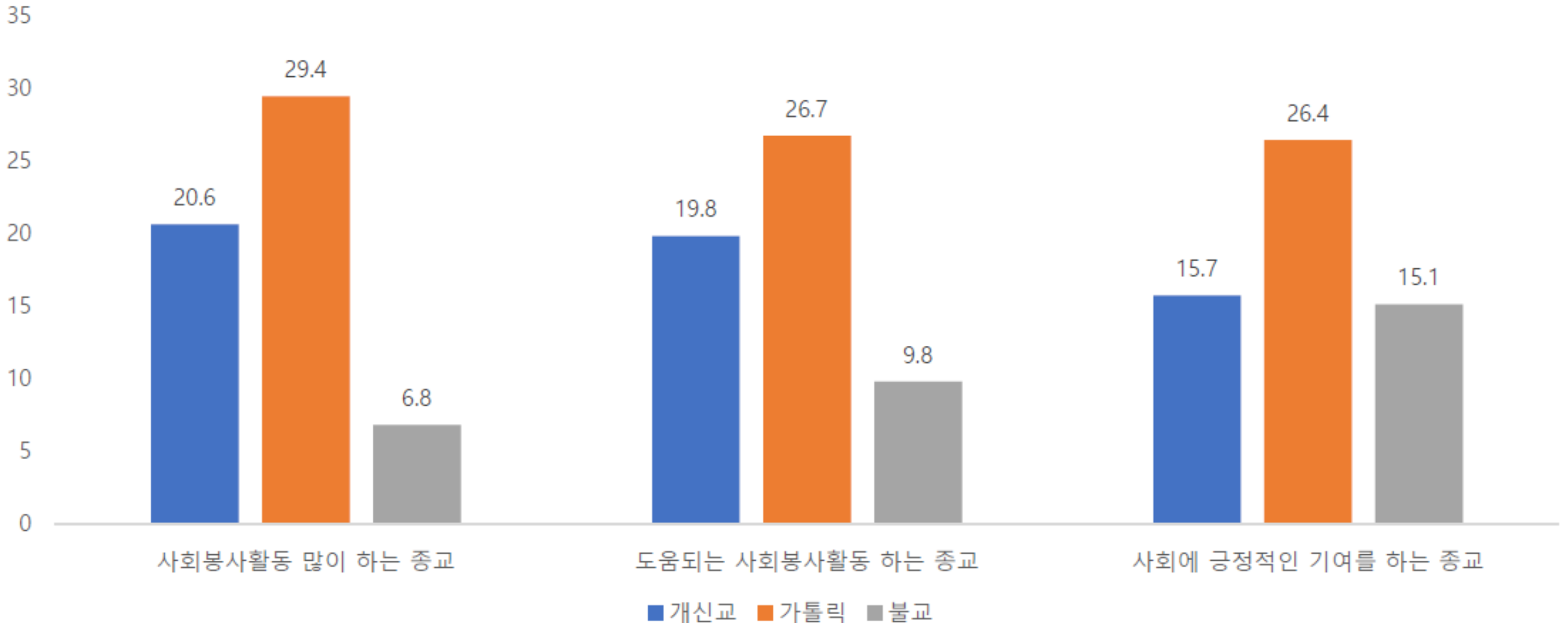
한국사회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



한국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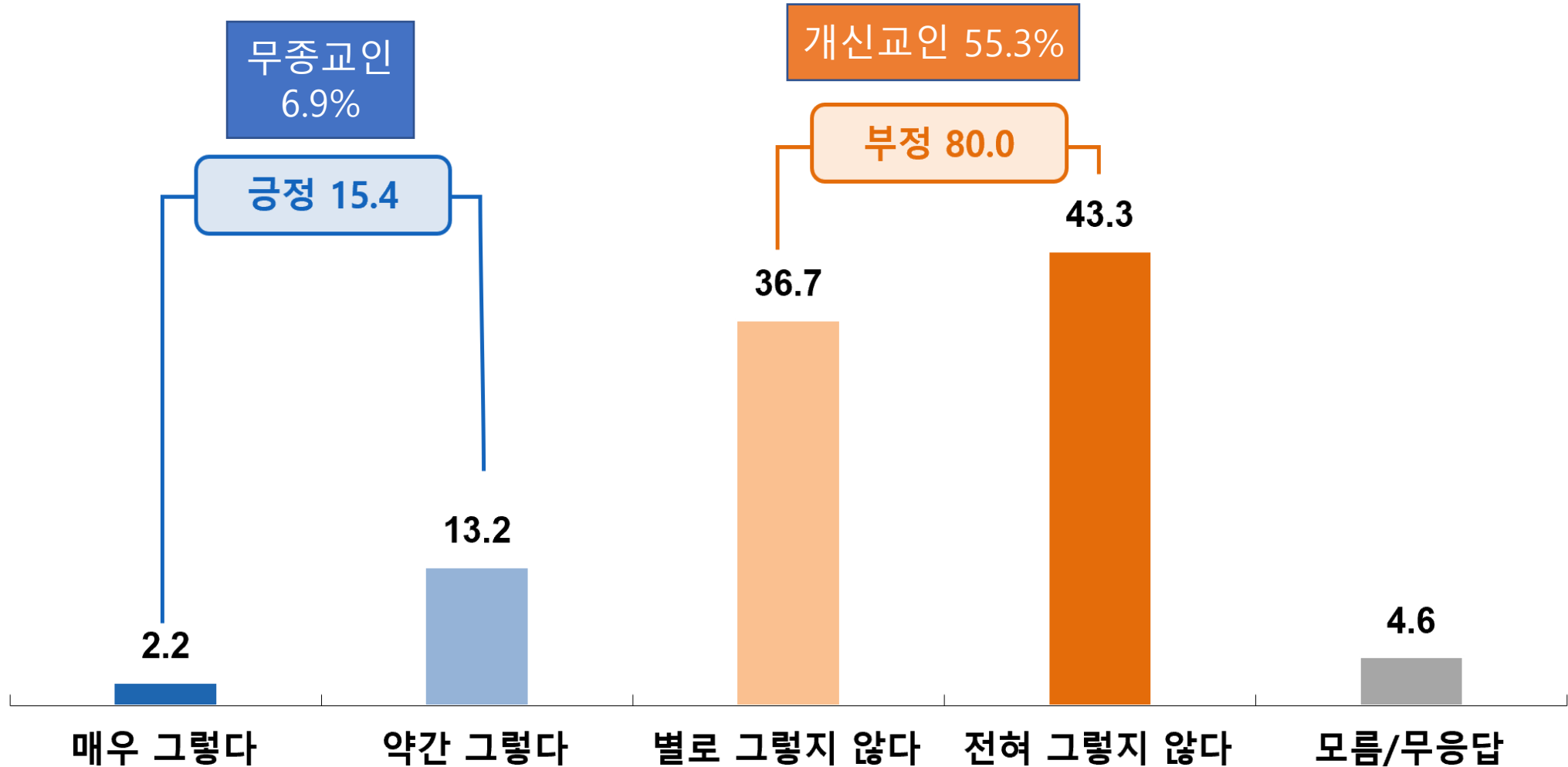


종교의 사회봉사 활동에 대한 인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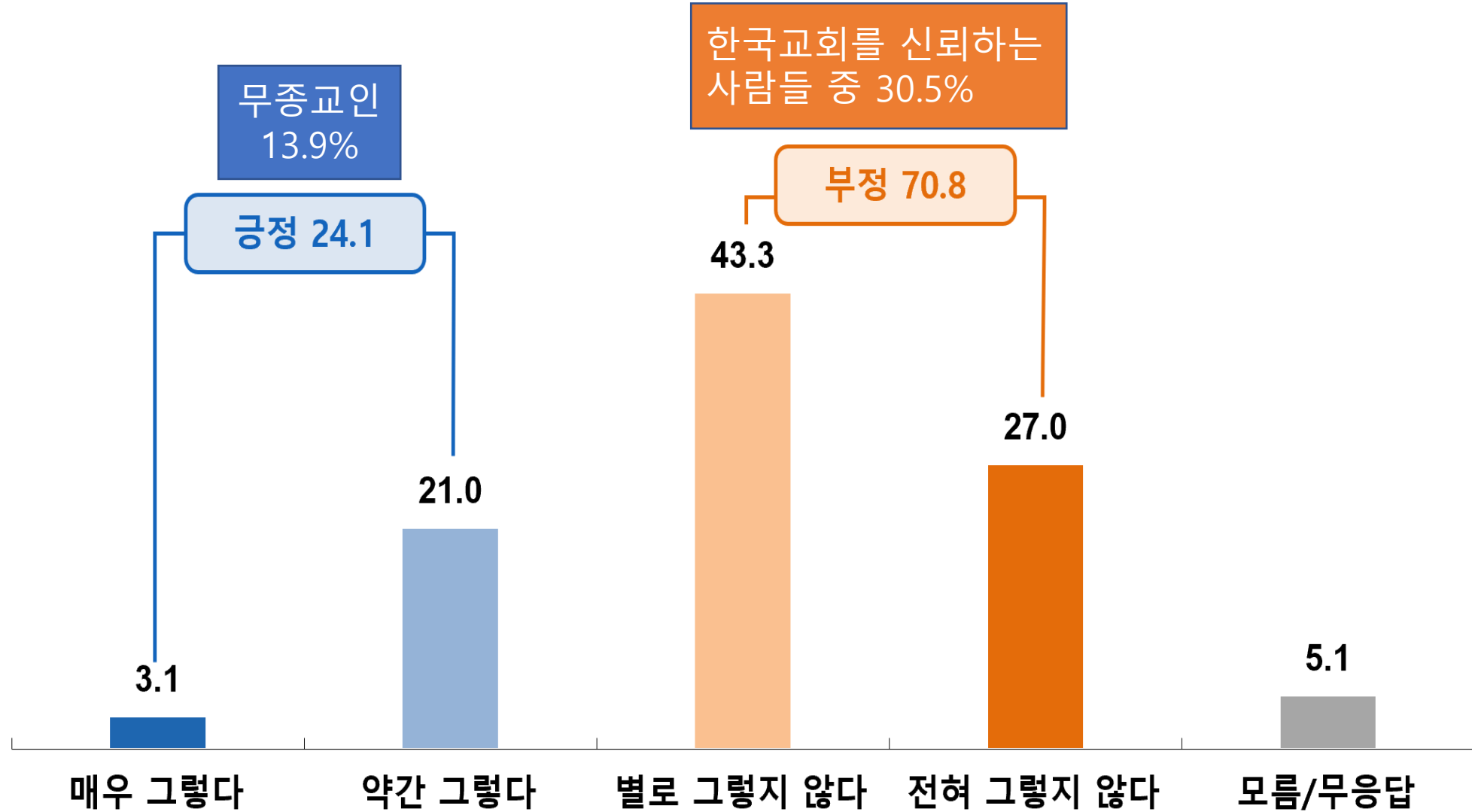


4. 한국 교회에 대한 평가

한국교회의 교회 밖 비판 수용 준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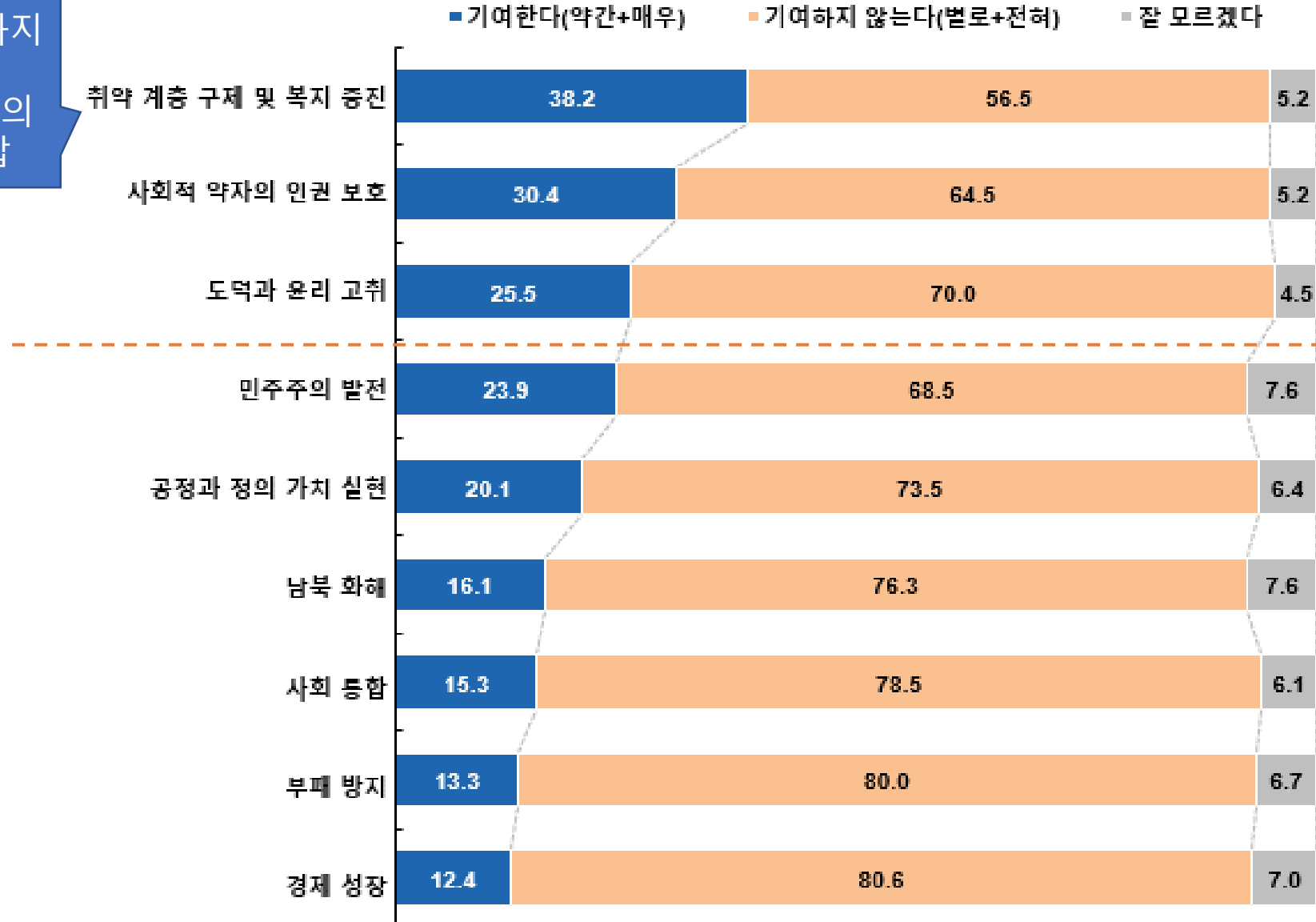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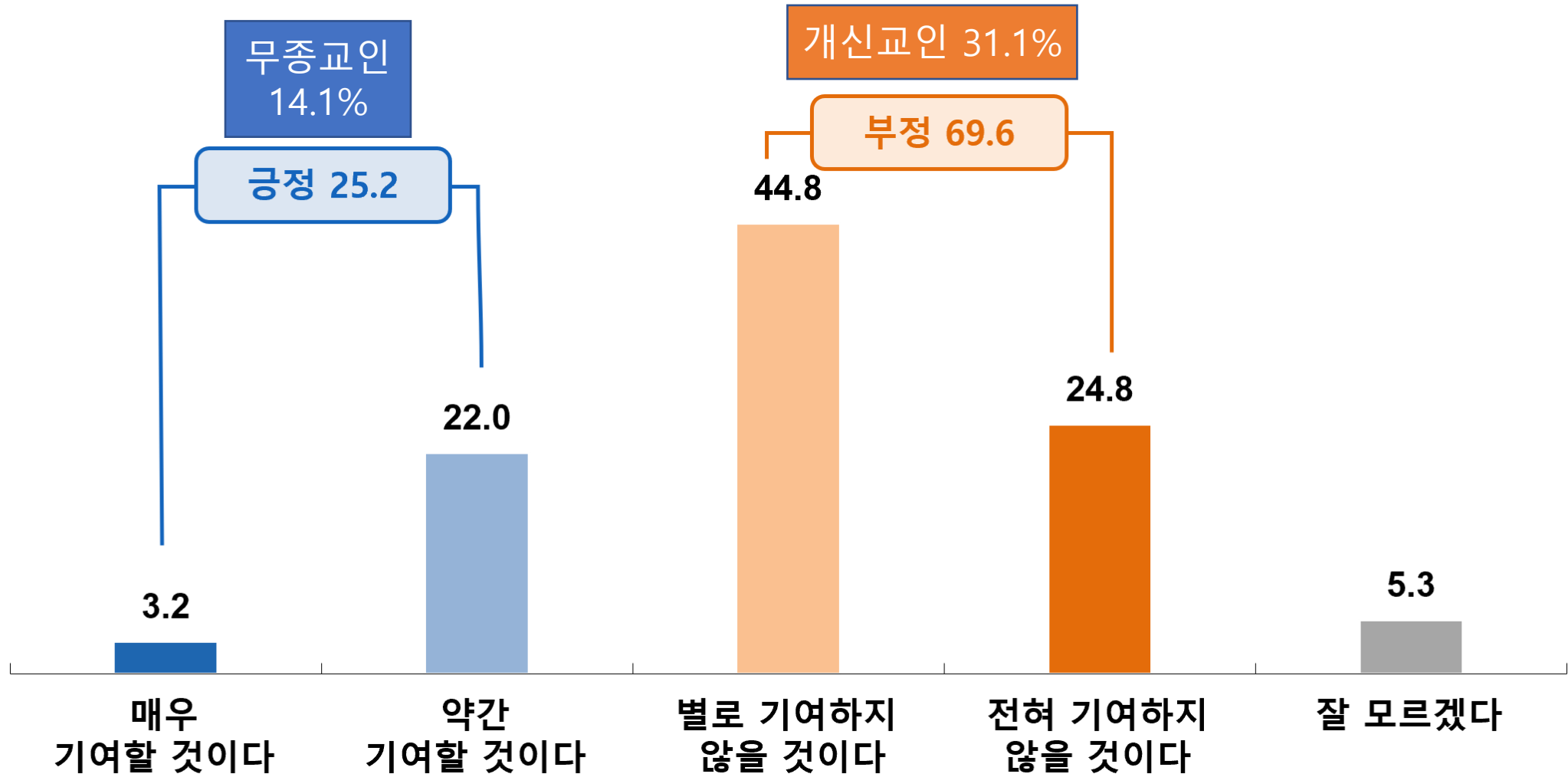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영역별 평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중의 29.7%와 무종교인의 27.3%도 긍정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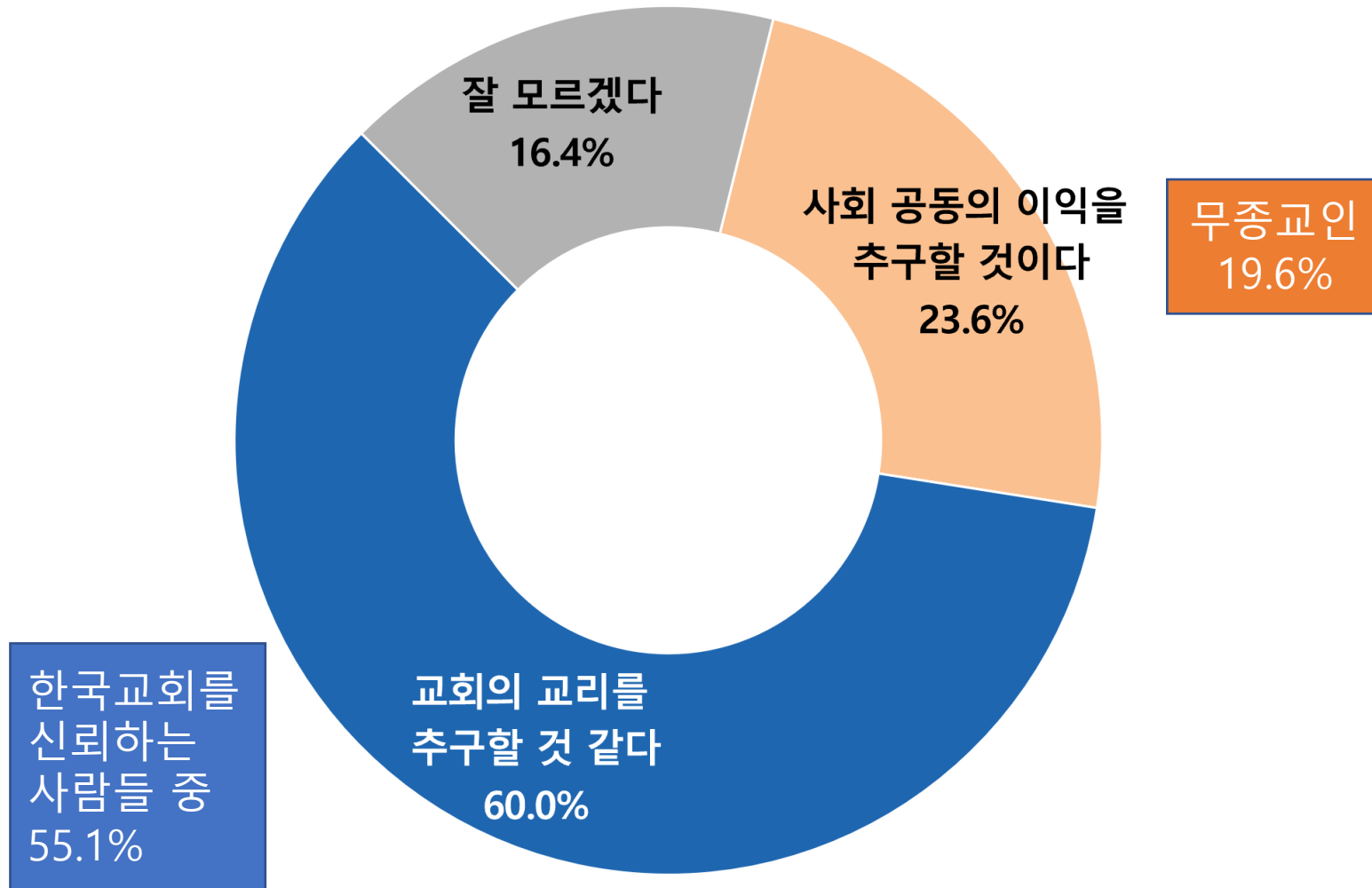


전반적 기여도 24.1%

앞으로 한국교회의 사회 기여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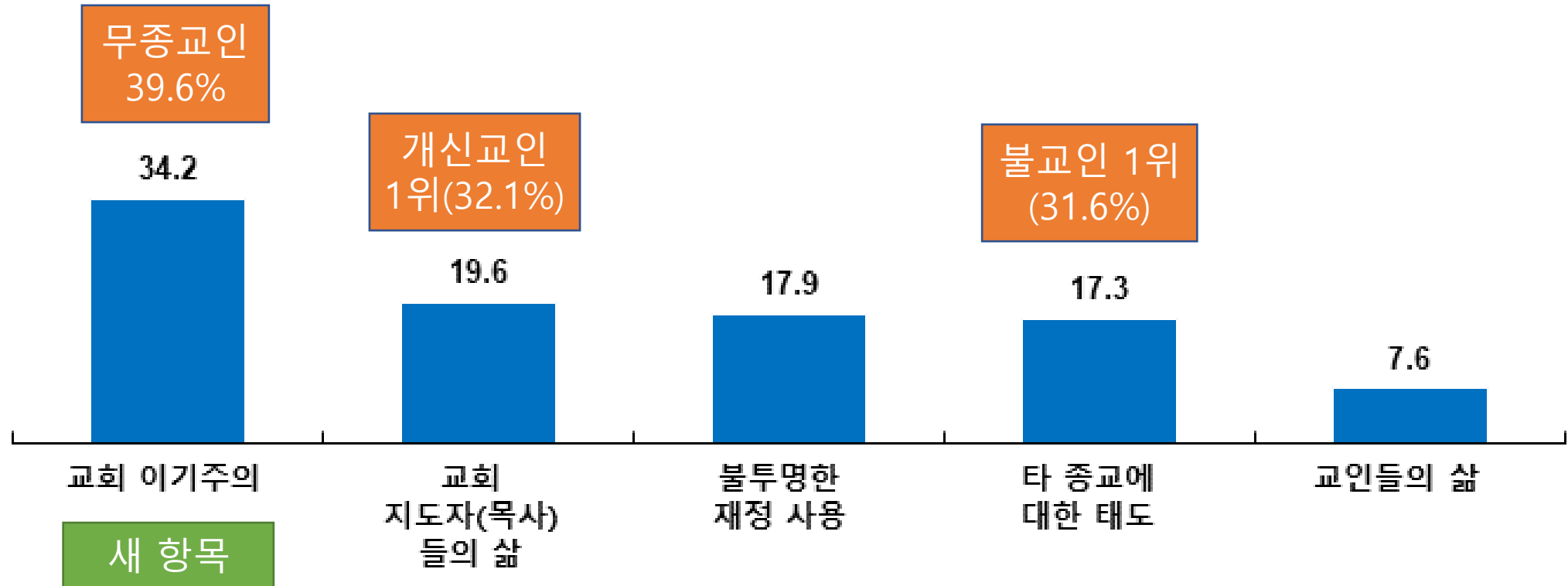


한국교회 이미지 (사회 공동의 이익 vs. 종교적 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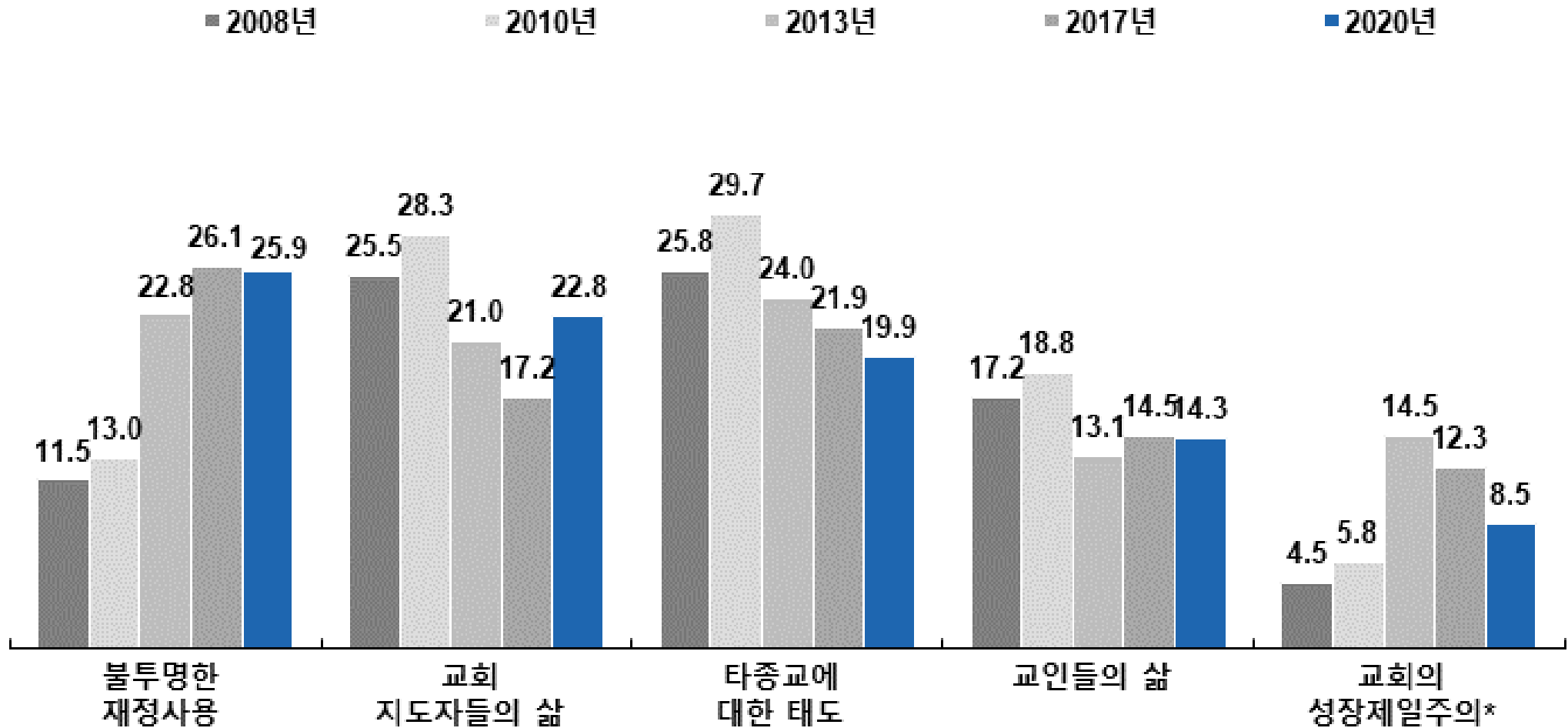


5. 한국 교회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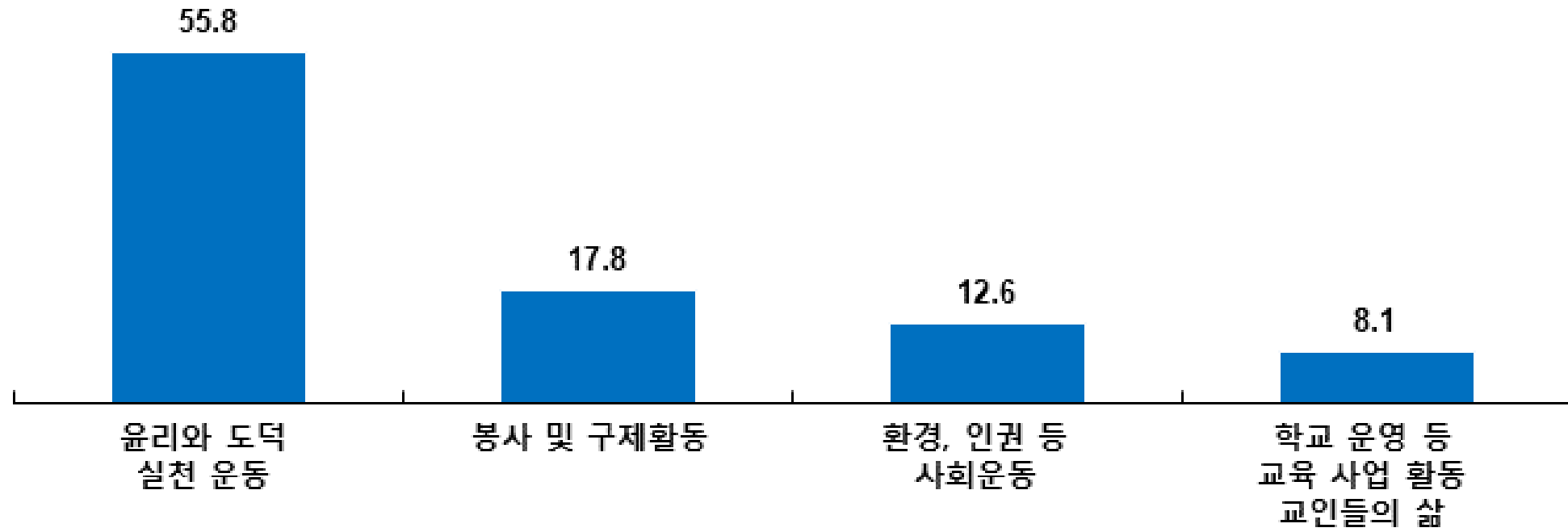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이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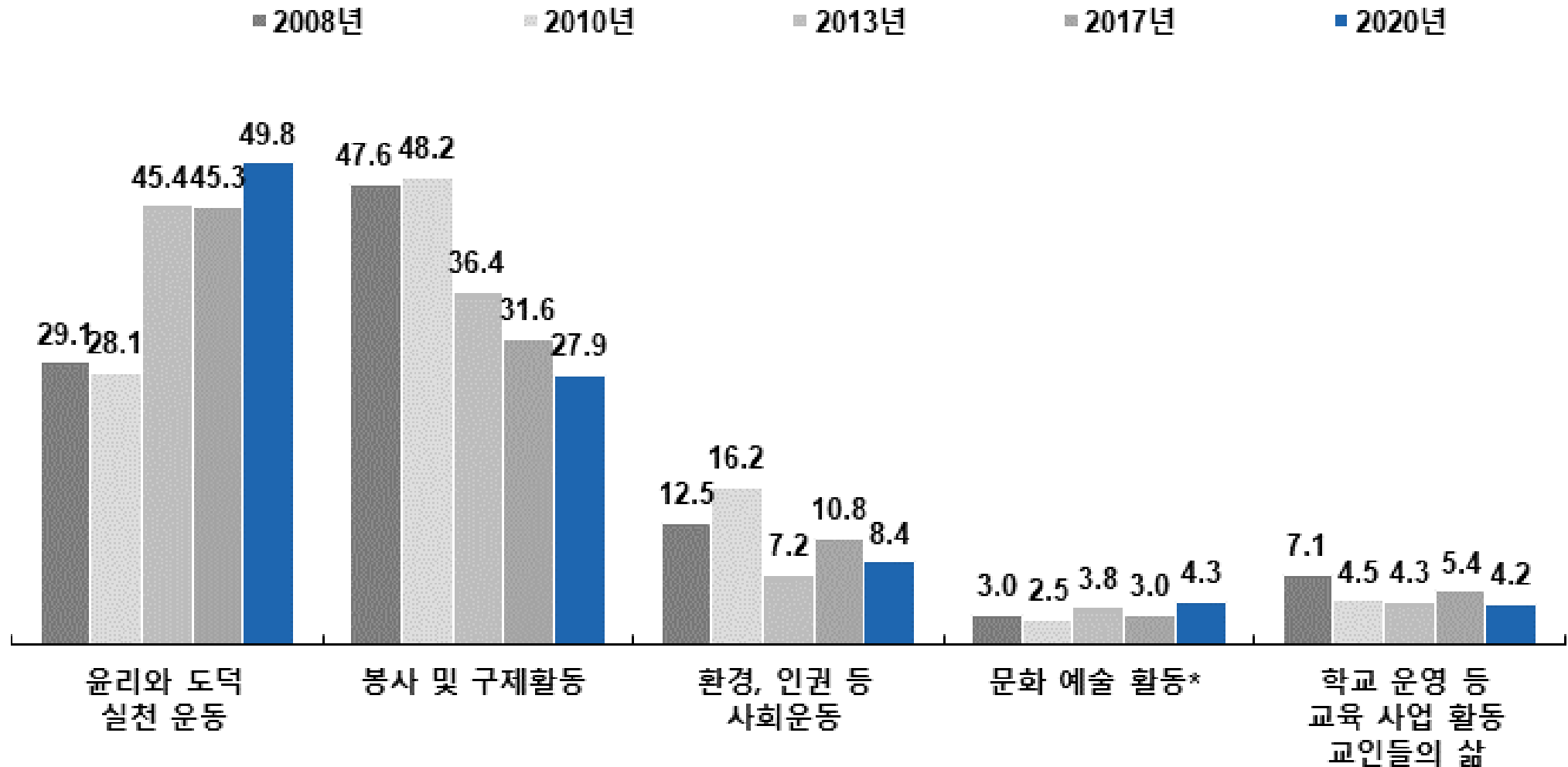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회적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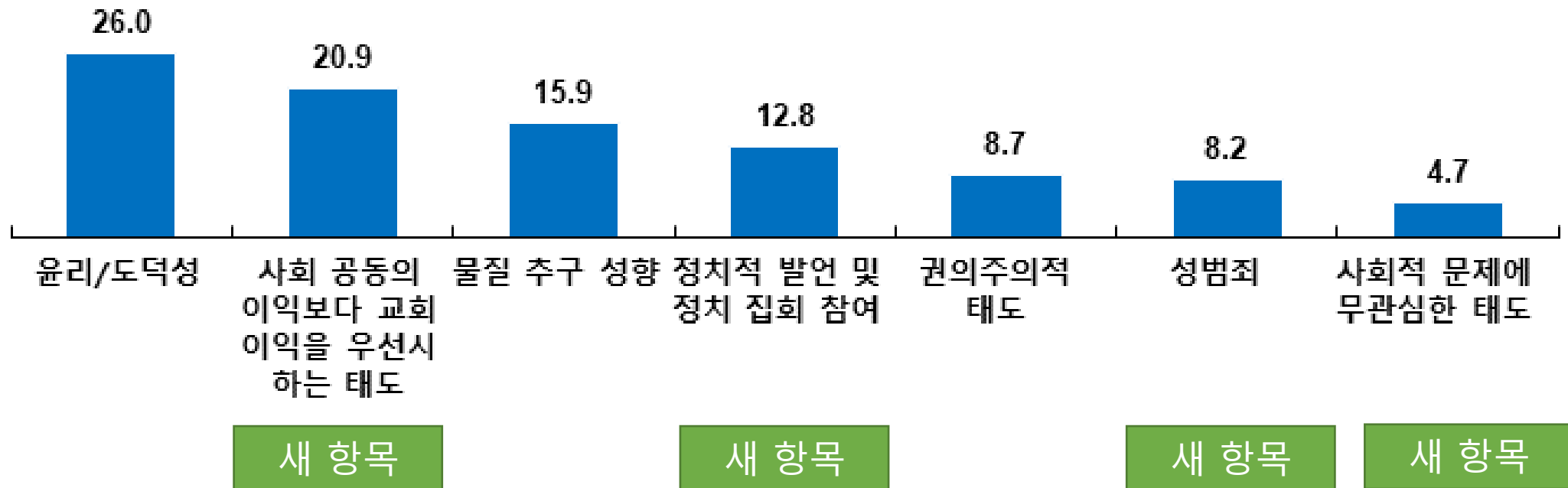


'문화 예술 활동'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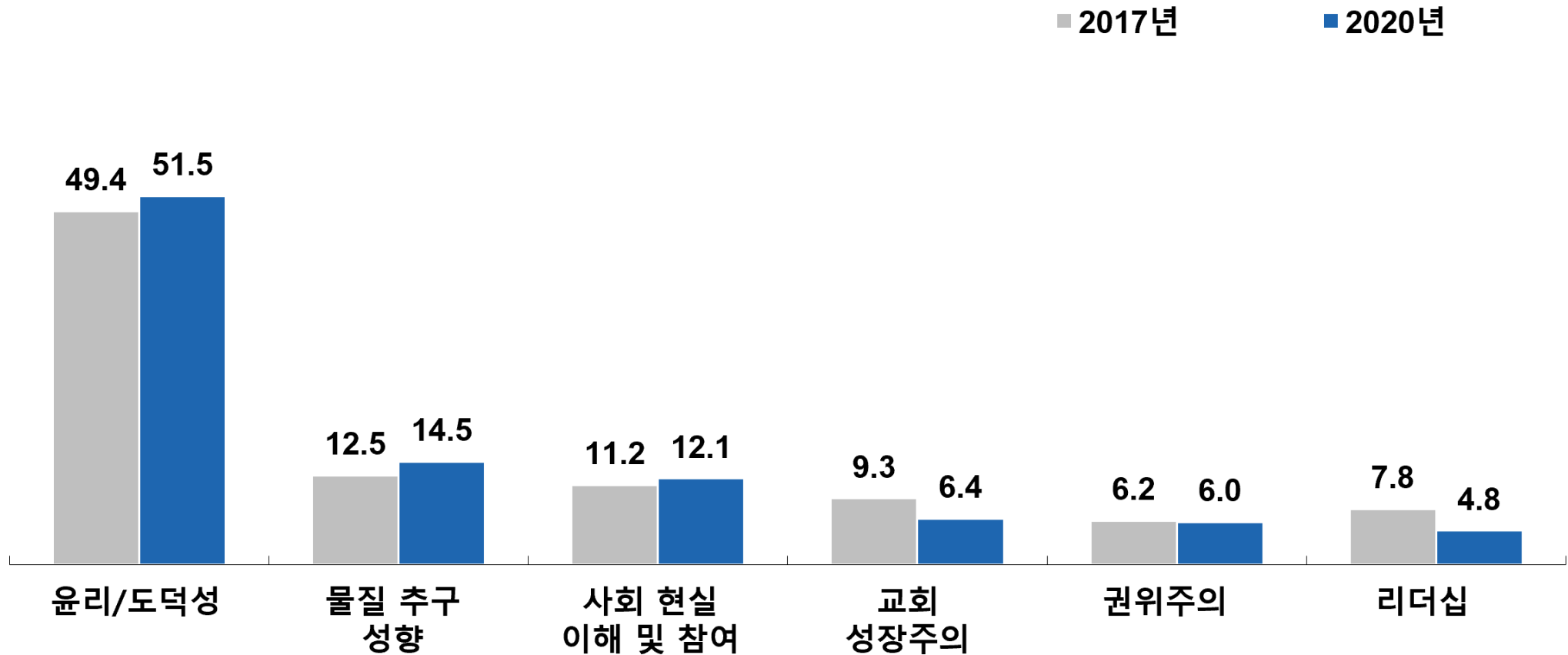
이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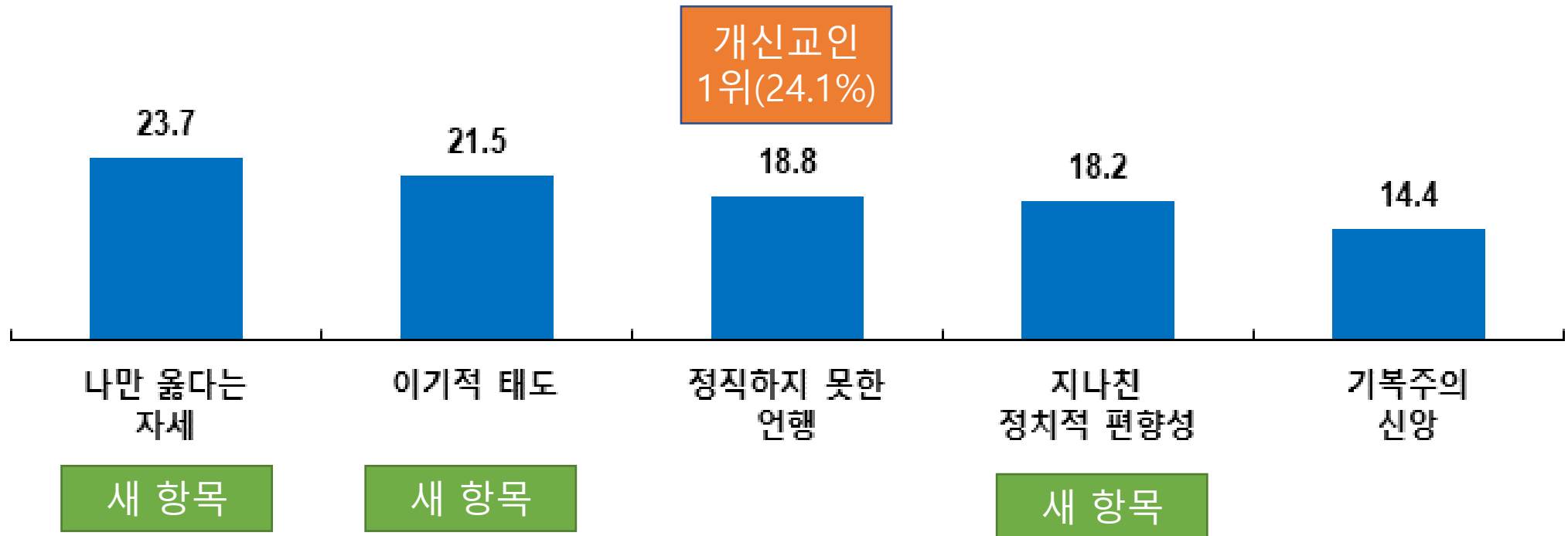
목회자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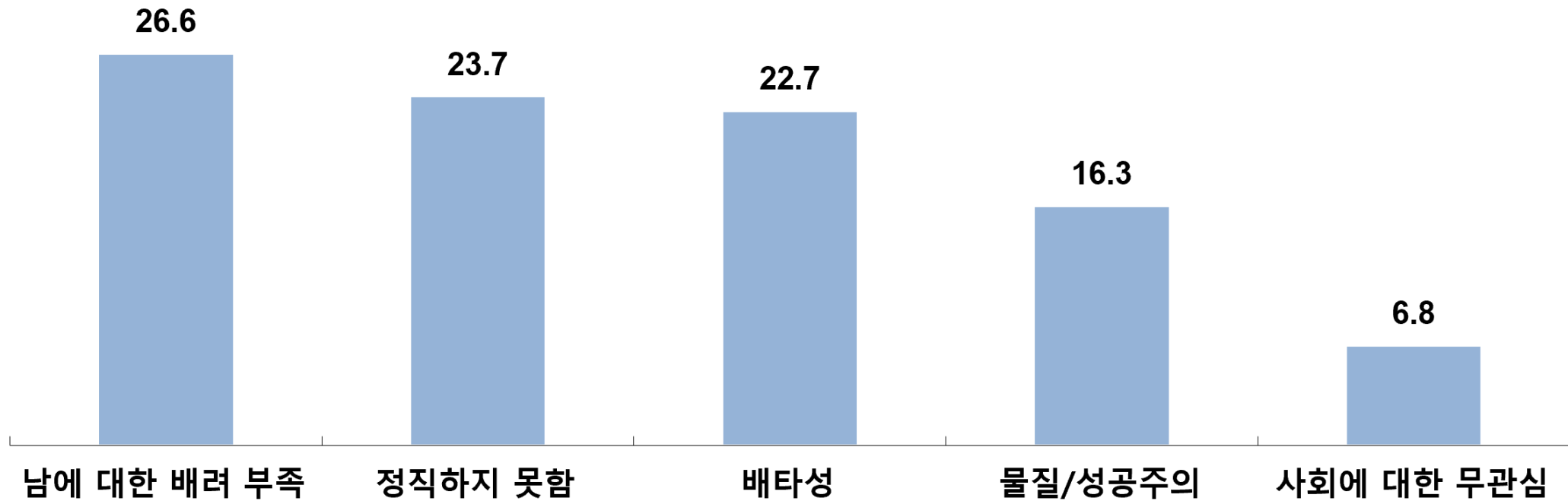
이전 조사 결과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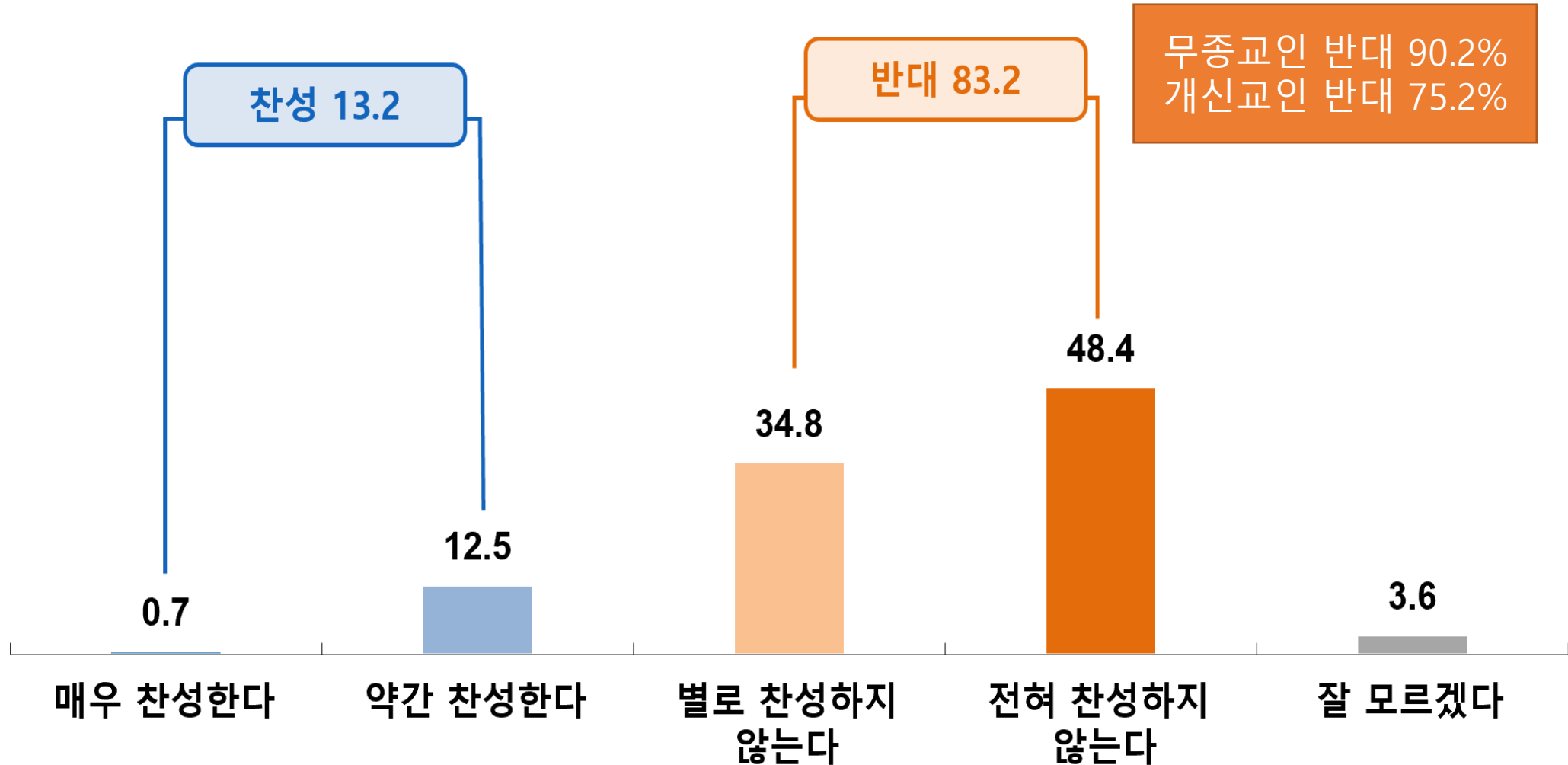


이전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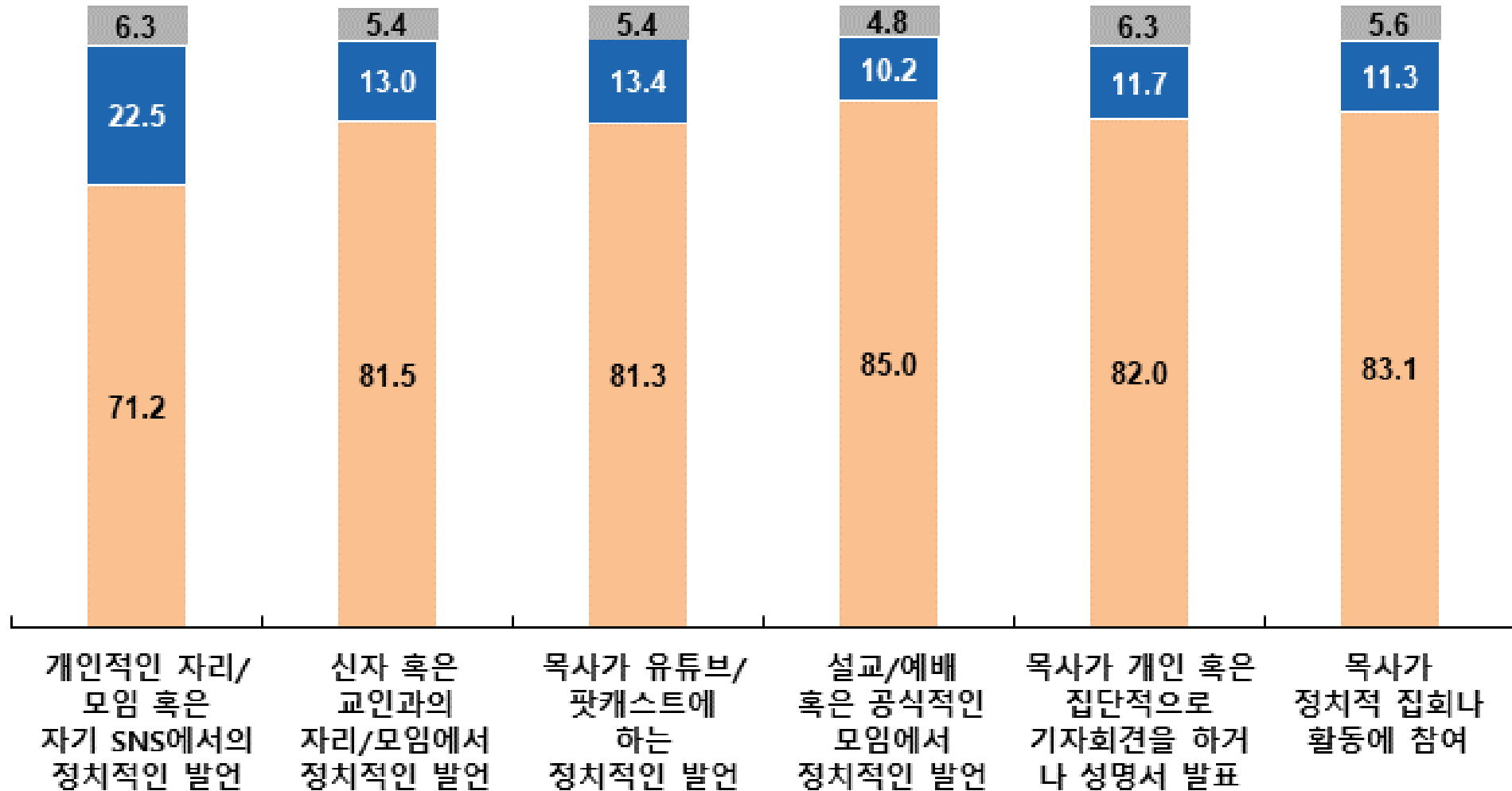
6. 교회와 정치

한국교회와 목사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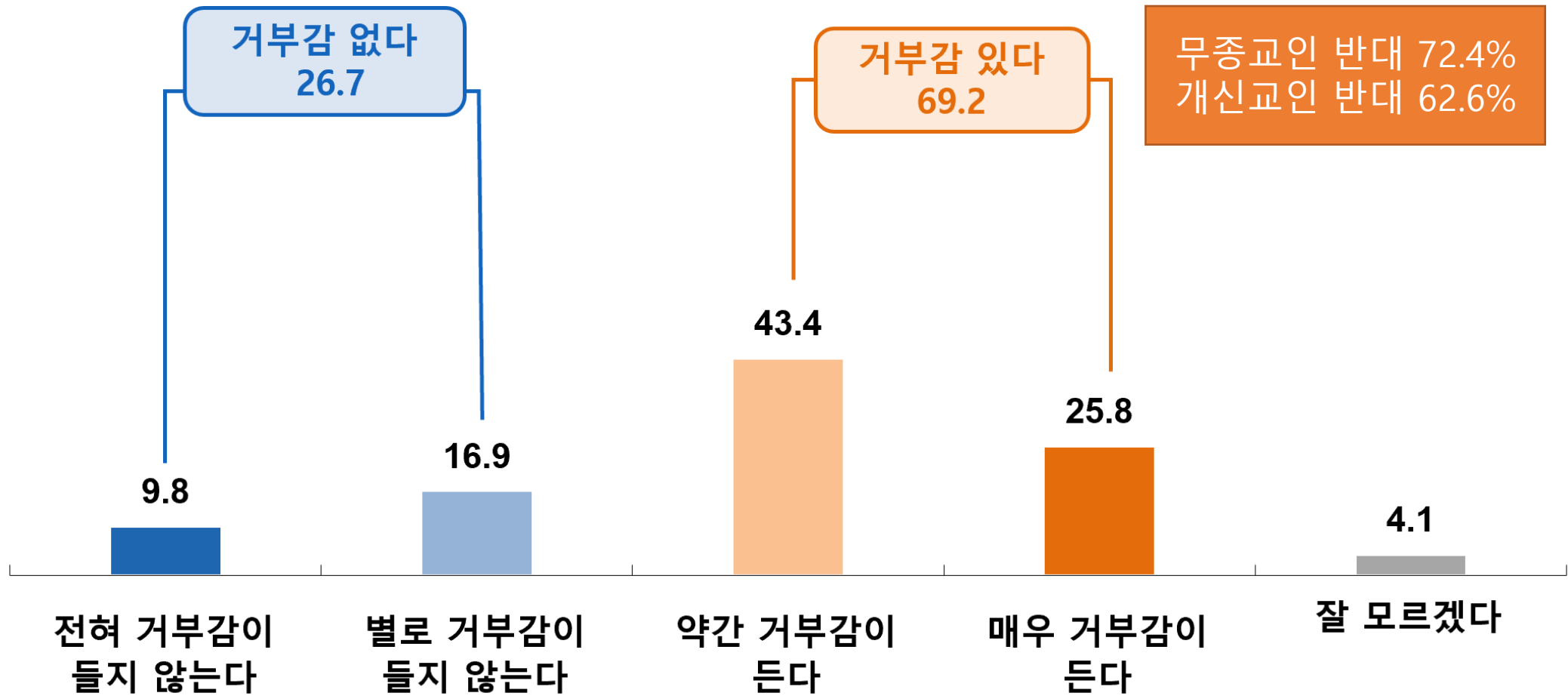


목사의 정치적 참여 허용 정도

■ 잘 모르겠다 ■ 문제 없다 ■ 문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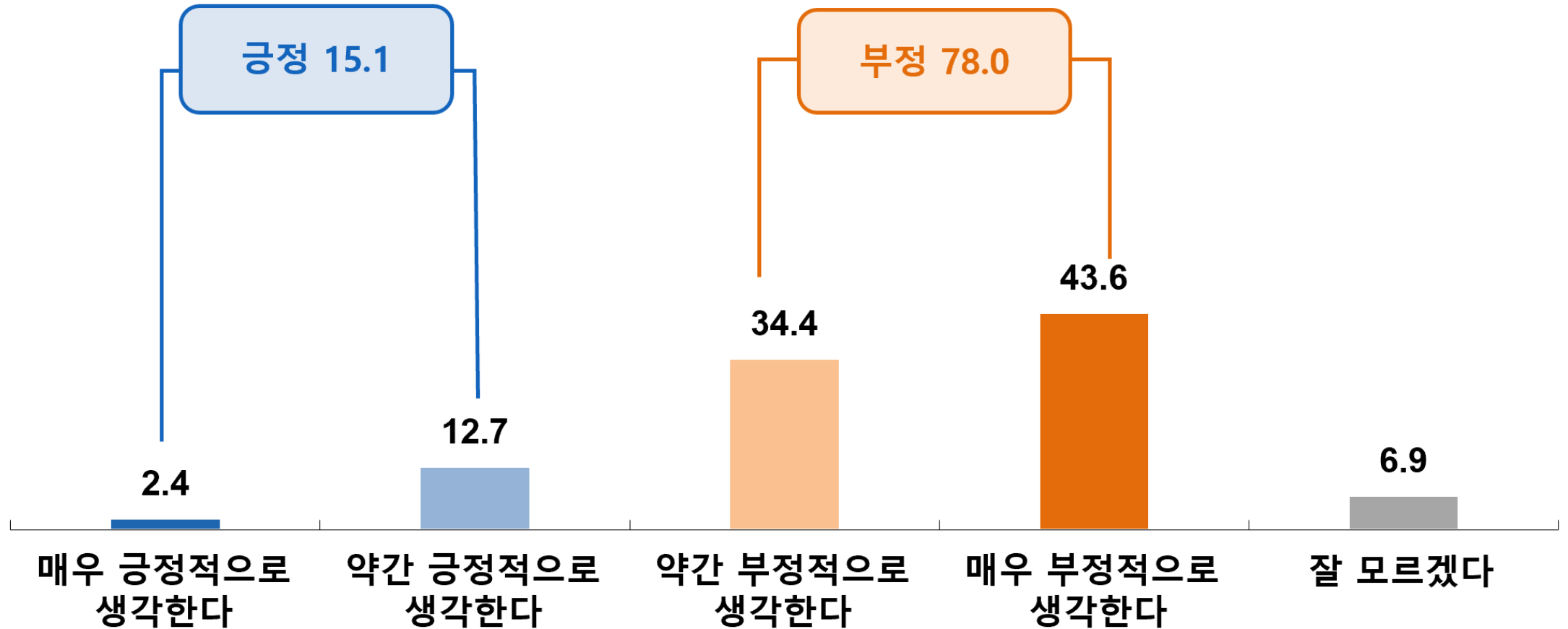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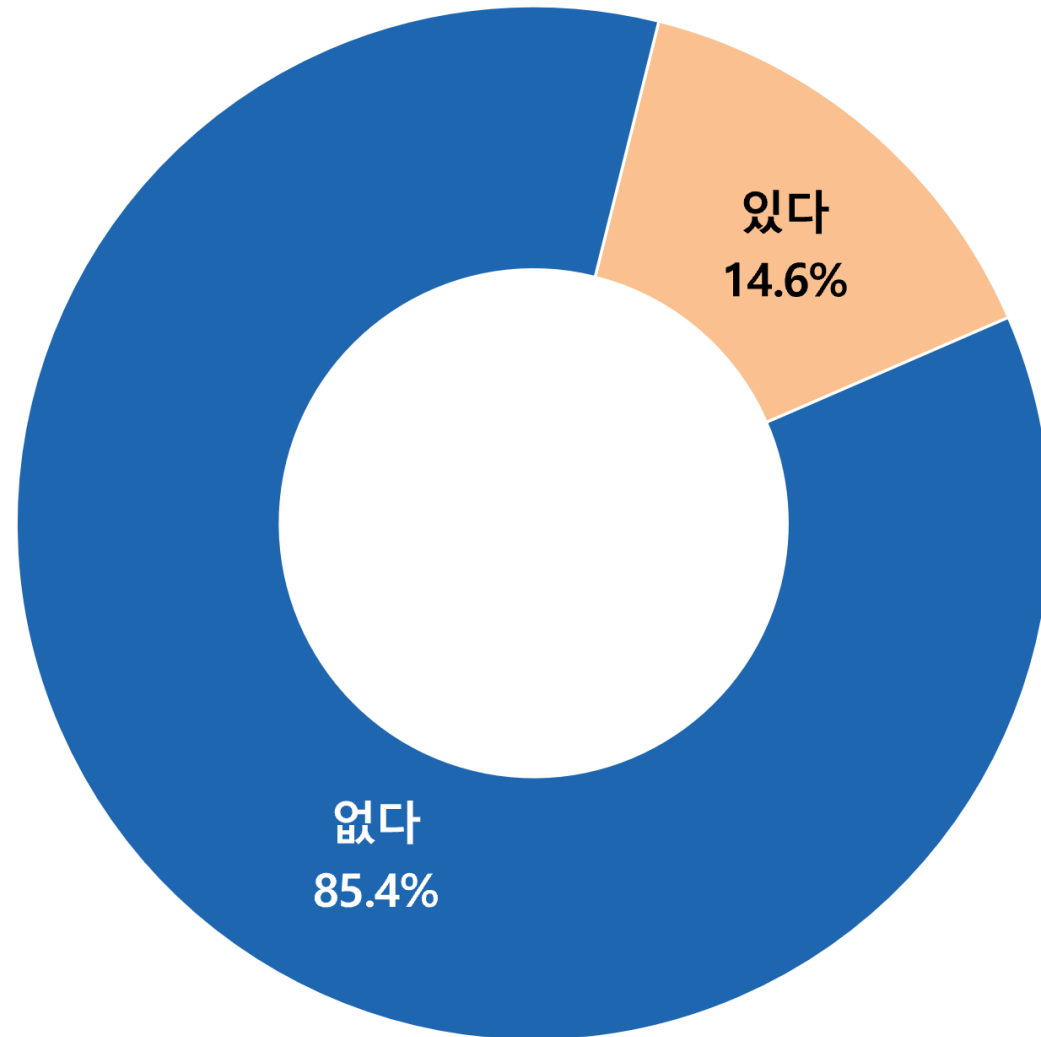
기독교인들의 정치적 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

구분		사례수 (명)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별로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	약간 거부감이 든다	매우 거부감이 든다	긍정 (전혀+ 별로)	부정 (약간+ 매우)	잘 모르겠다	계
전체		(1000)	9.8	16.9	25.8	43.4	26.7	69.2	4.1	100.0
성별	남성	(498)	11.8	19.2	26.2	41.0	31.0	67.1	1.8	100.0
	여성	(502)	7.8	14.5	25.4	45.9	22.3	71.3	6.4	100.0
연령	20대	(159)	17.1	24.4	26.5	26.1	41.4	52.6	6.0	100.0
	30대	(149)	15.3	16.2	22.2	40.8	31.6	63.0	5.5	100.0
	40대	(186)	9.9	22.7	17.9	45.7	32.5	63.6	3.8	100.0
	50대	(197)	10.3	8.2	28.3	48.5	18.5	76.9	4.7	100.0
	60대 이상	(309)	3.1	15.3	30.3	49.0	18.4	79.3	2.3	100.0
이념성향	보수	(255)	9.9	12.8	31.7	43.2	22.7	74.9	2.4	100.0
	중도	(469)	7.7	18.3	26.7	43.8	26.1	70.5	3.4	100.0
	진보	(233)	15.7	17.8	19.2	45.9	33.5	65.1	1.4	100.0
	잘 모르겠음	(43)	0.0	19.7	16.9	27.5	19.7	44.5	35.9	100.0
종교	기독교(개신교)	(186)	12.7	23.5	36.8	25.8	36.2	62.6	1.2	100.0
	천주교(가톨릭)	(108)	5.2	16.2	24.4	52.3	21.5	76.8	1.8	100.0
	불교	(128)	11.8	20.4	26.5	36.0	32.3	62.5	5.3	100.0
	기타 종교	(32)	53.4	0.0	0.0	38.0	53.4	38.0	8.5	100.0
	종교 없음	(547)	8.4	14.0	22.6	49.8	22.5	72.4	5.1	100.0
한국교회 신뢰도	신뢰	(210)	12.2	26.5	40.0	21.2	38.7	61.2	0.1	100.0
	신뢰하지 않음	(740)	9.0	15.0	22.4	50.8	24.0	73.1	2.8	100.0
	잘 모르겠음	(51)	11.3	4.4	17.0	28.5	15.7	45.5	38.8	100.0

대통령/특정 정치인 초청 기도회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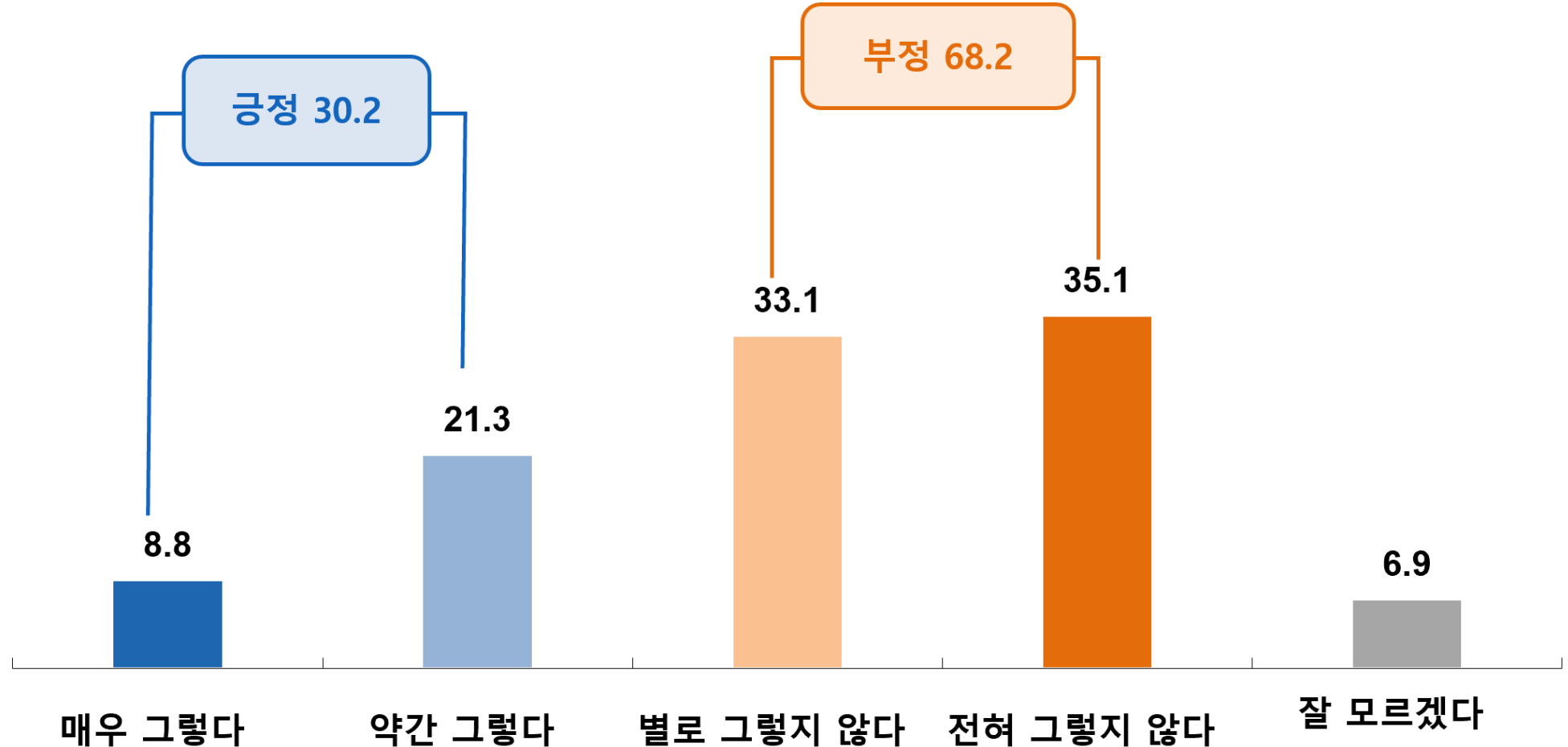


기독교인 국회의원 인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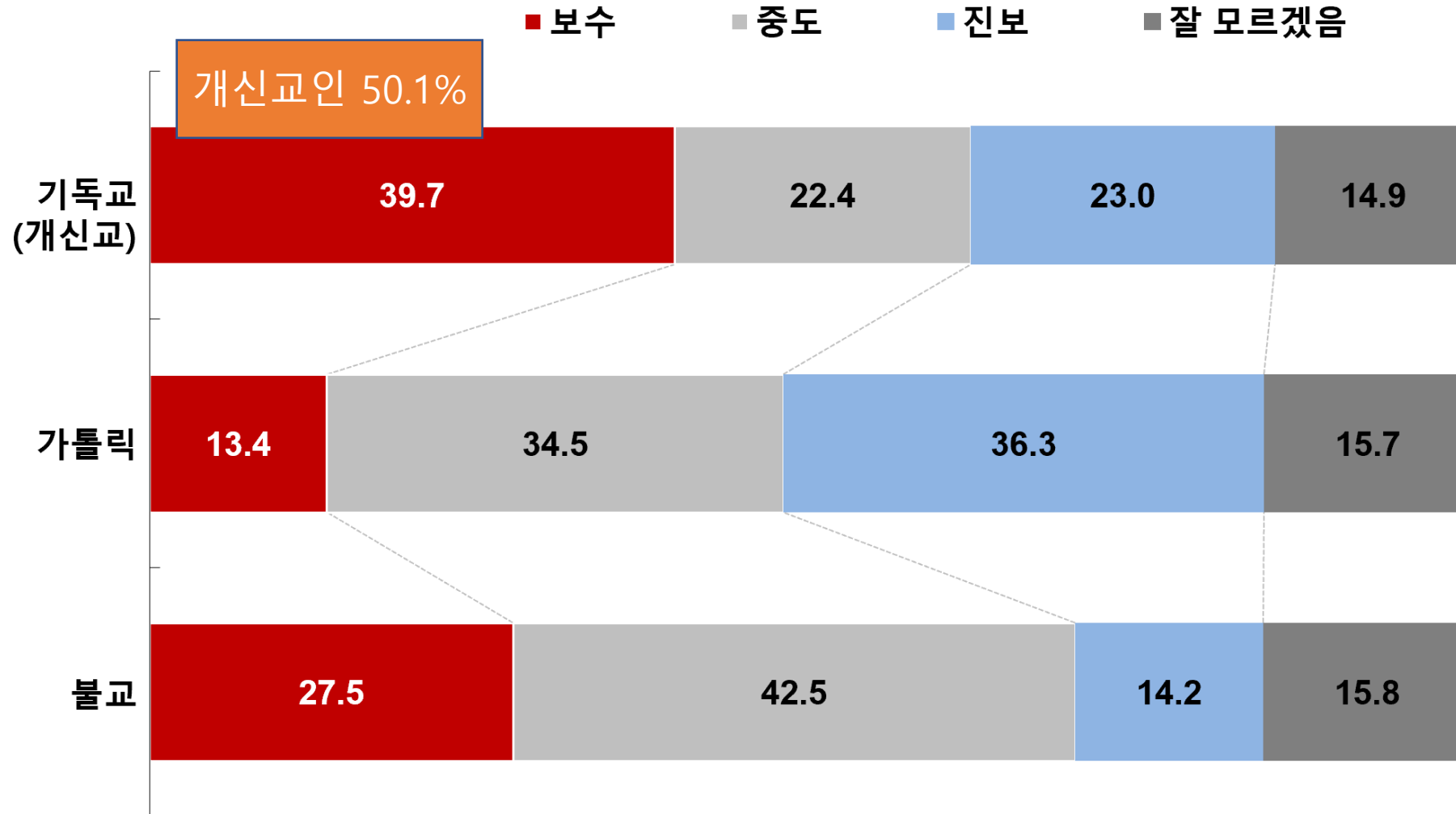


기독교인 국회의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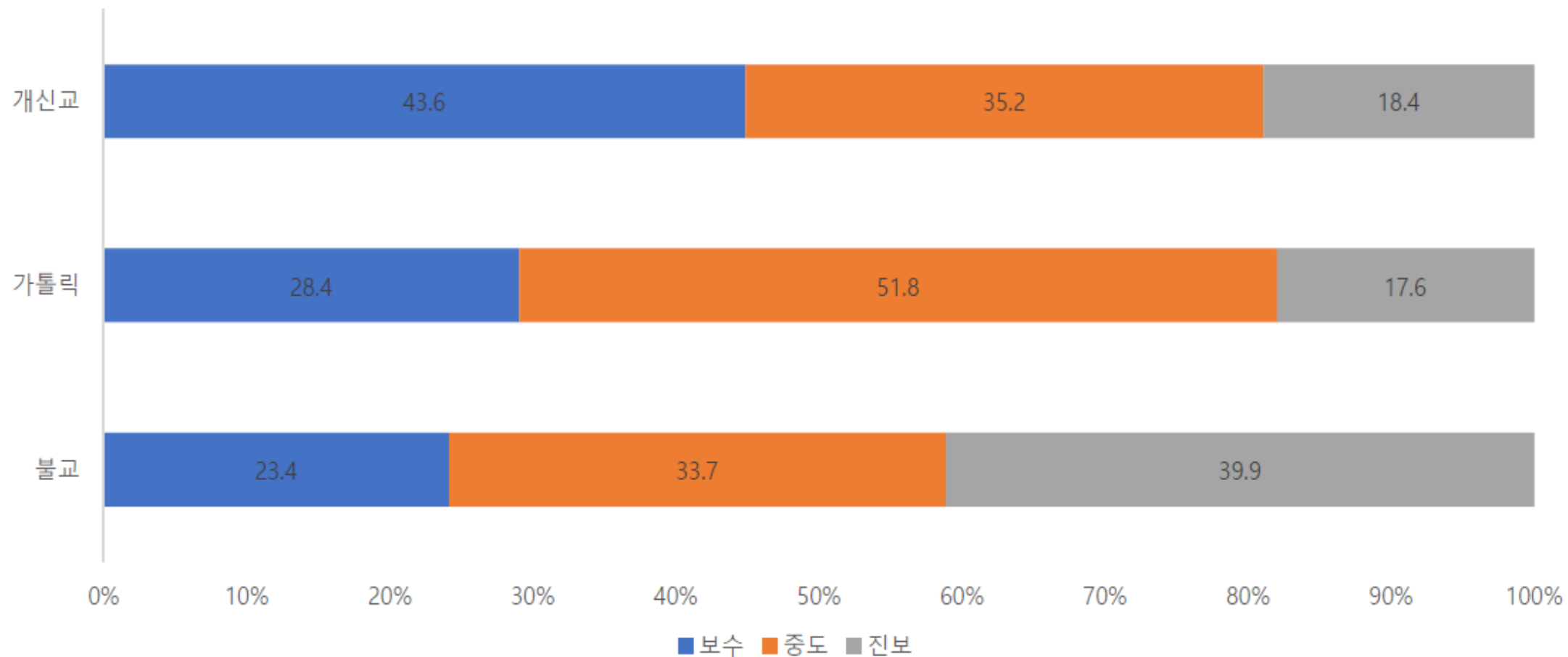
(N=146, 기독교인 국회의원 인지자)



종교별 정치적 이념 이미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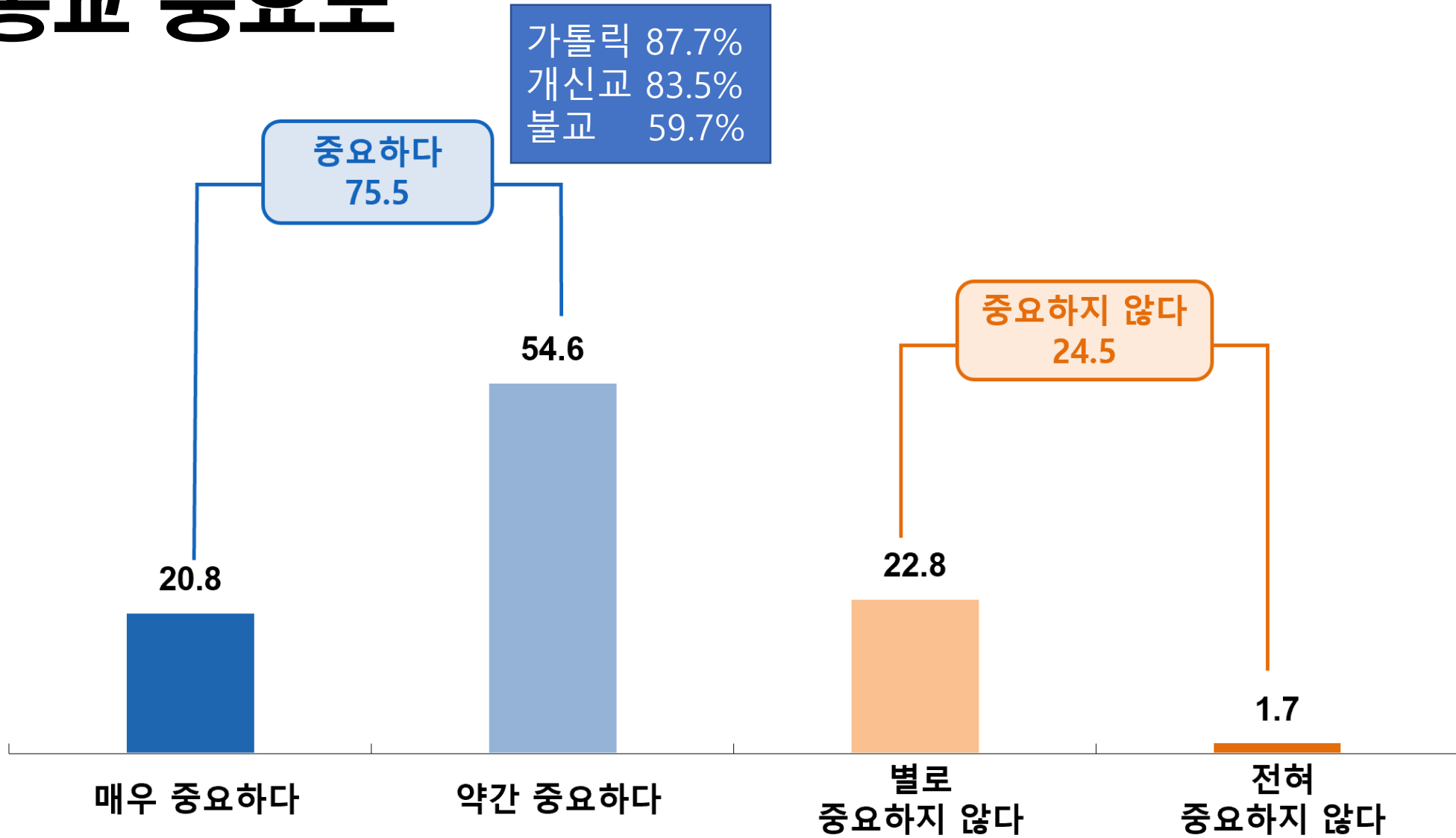


종교별 이념성향



7. 종교 중요도

종교 중요도



결론 및 제언

1. 교회 공공성의 회복

- 우리의 신앙생활은 공적인 기준에 의해 점검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한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이 가져올 결과와 그 여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 순수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잘못된 신앙관에 기초하고 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면서 한국교회의 신앙관 및 교회관을 바로 세워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공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인 행동이나 발언을 할 때 이것이 미칠 파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사회와 보다 폭넓게 소통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성찰의 구조화

- 윤리와 도덕성은 언뜻 개인적인 영역이고 정신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개인에게 맡기게 되면 공동체나 제도의 차원에서 점검하거나 책임을 지기 어렵다. 따라서 교회 내부에 성찰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교회 현실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공론장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시민 사회 영역에서 사회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듯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서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자정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진정성 있는 구제와 봉사 활동

- 개신교의 구제 봉사 활동이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개신교가 하는 복지나 봉사 활동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신교가 하는 봉사 활동은 그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전도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회 밖에서 볼 때는 순수한 이웃사랑이 아니라 교세 확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며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제나 봉사 활동을 할 때에는 드러내놓고 전도를 하기보다는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시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진정성이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진정성을 담보하면서 사회봉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교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무종교인에 대한 관심 필요

- 이번 조사에서는 다른 종교인들보다 무종교인들의 개신교에 대한 평가가 매우 좋지 않았다. 교회에 대한 신뢰도나 여러 평가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기성 종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크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교계에서는 무종교인이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히 전도의 대상이 많다고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들이 종교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기성 종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전도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이번 조사 결과처럼 무종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강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성 종교에 대해서 실망하여 관심을 돌리고 있는 무종교인들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세심한 대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5. 교회와 정치에 대한 바람직한 태도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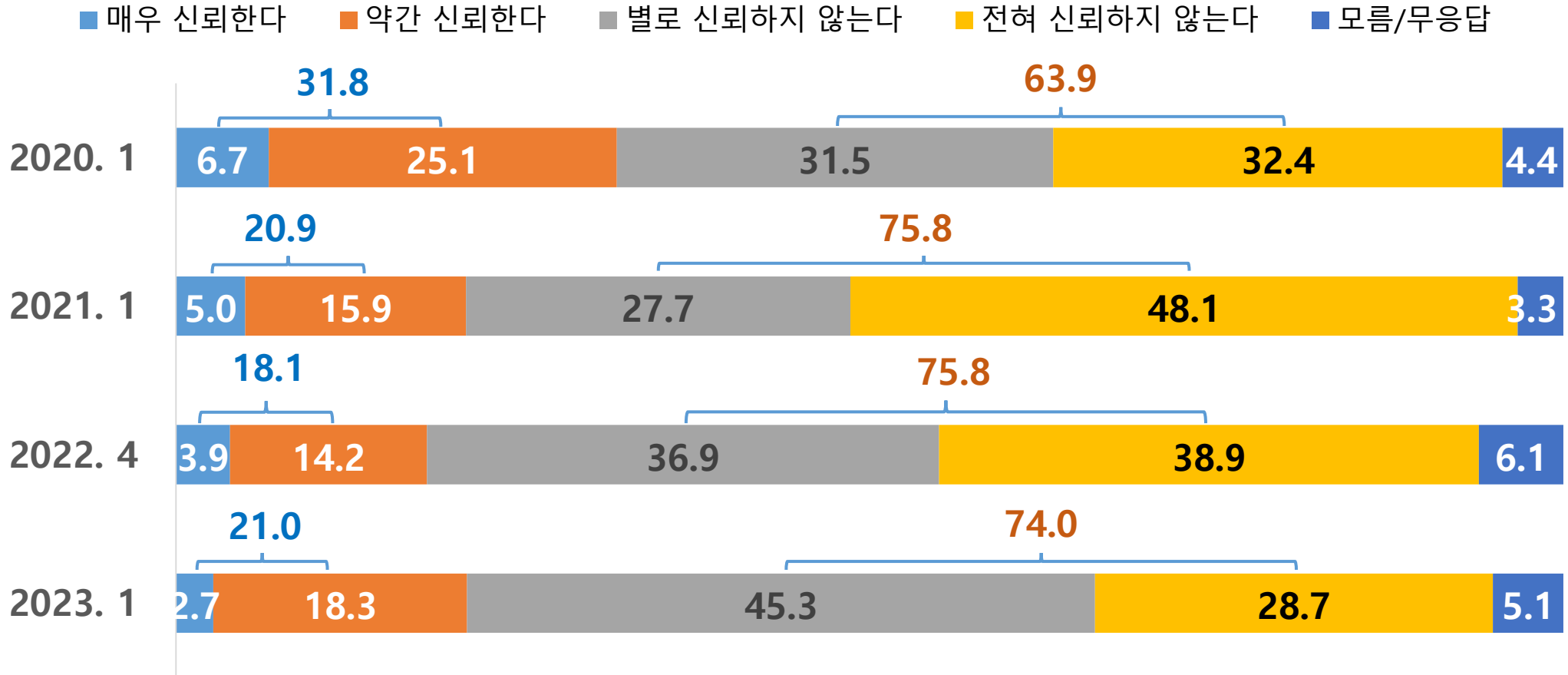
- 목회자들의 정치 참여나 정치 발언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의 사회의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것과 함께 역시 공공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사회관은 현실 유지와 기득권 수호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기 때문에 건전한 비판마저도 결여되기 쉽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공공성이 결여된 보수적 태도는 결국 이익집단화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교회의 현실 참여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종교의 생명력은 현실에 대한 '초월성'에 있다. 현실 세계에 동화되어 세속 가치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종교의 본질인 초월의 이상은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한 그 무엇이라도 성경의 정신과 그 가르침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2023년 한국교회 신뢰도 형성에 미친 요인에 대한 분석
- 빅데이터 분석에 나타난 요인과 관련하여 -

김진양
(주)지앤컴리서치 부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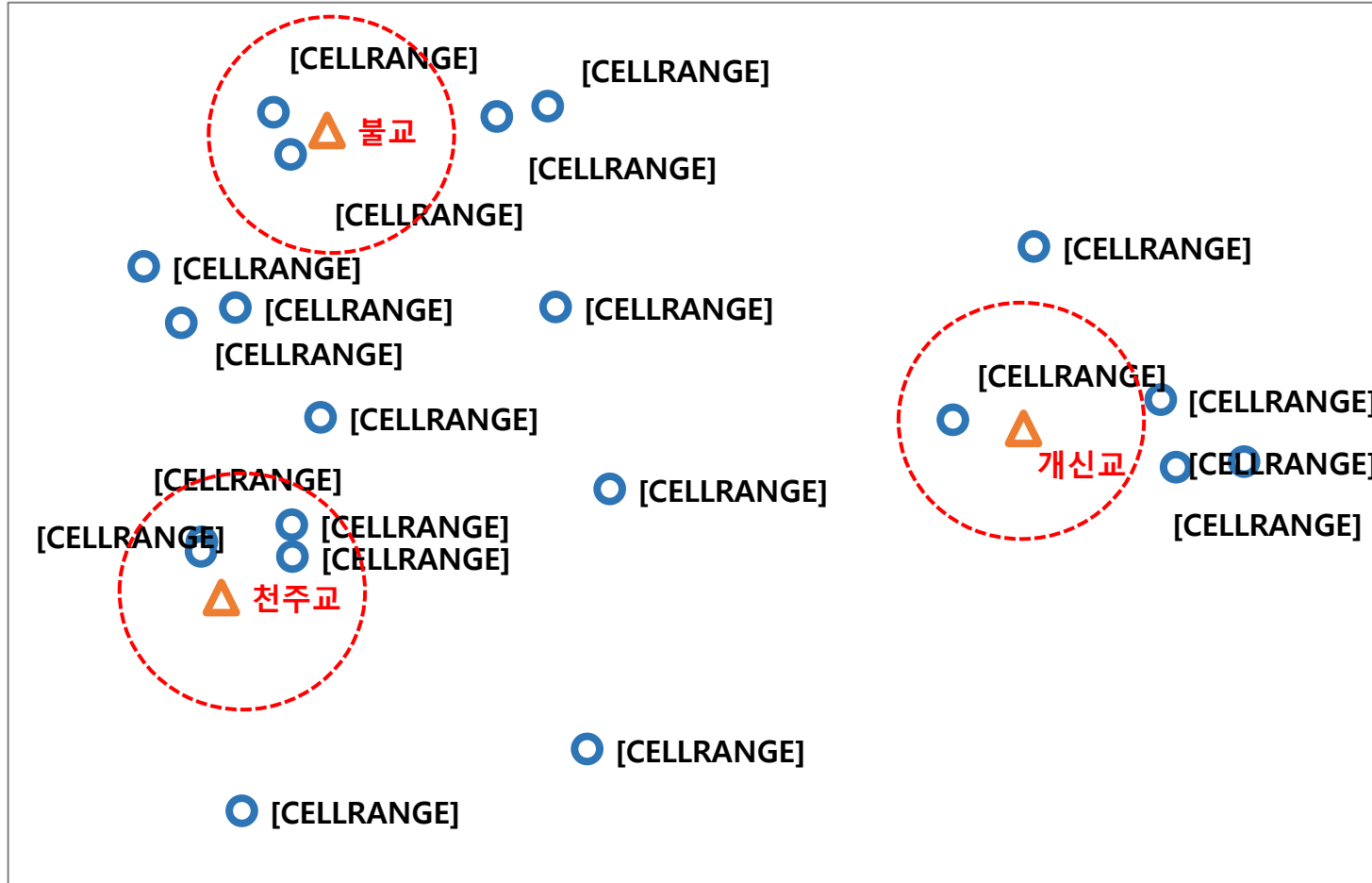
1.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회 신뢰도와 이미지

[과거 차수의 전반적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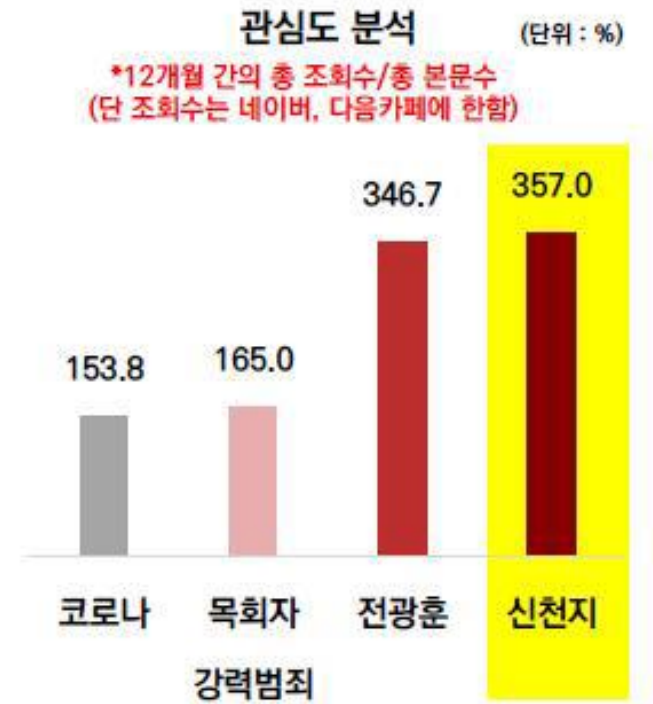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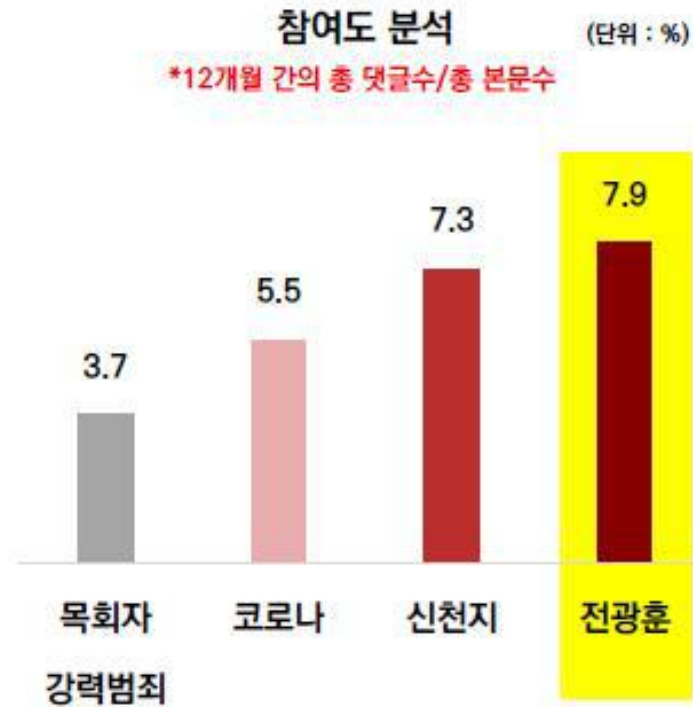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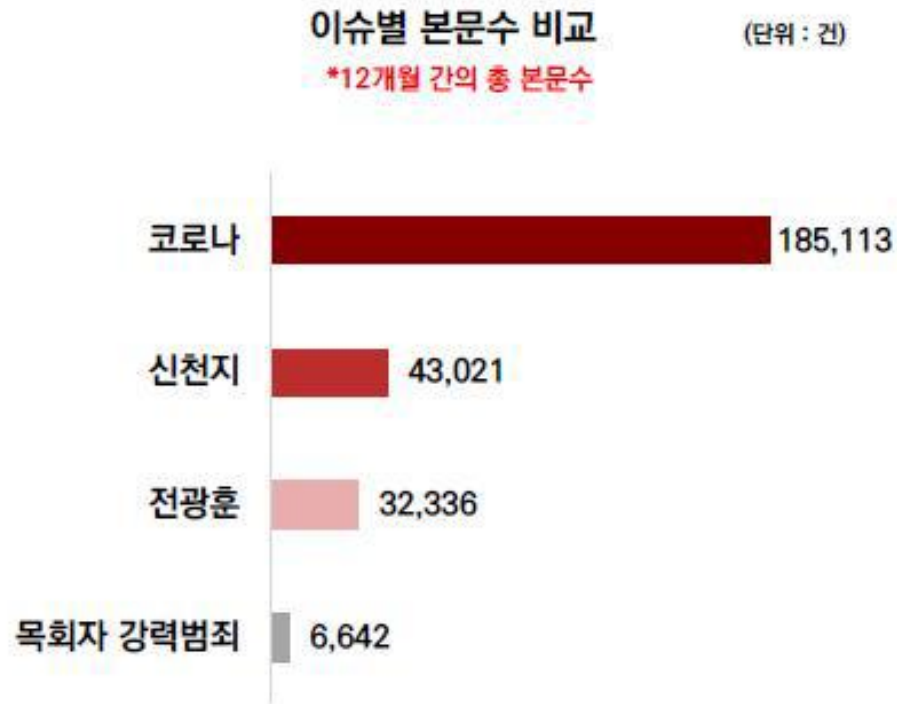
1. 코로나 19 상황에서 교회 신뢰도와 이미지

[종교별 이미지 포지셔닝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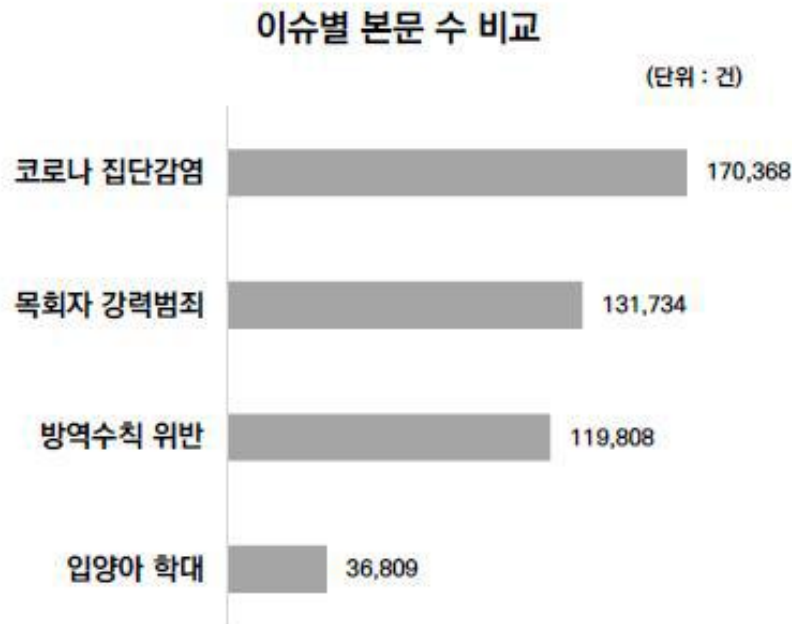
2. 한국교회 온라인 이슈

[그림] 2020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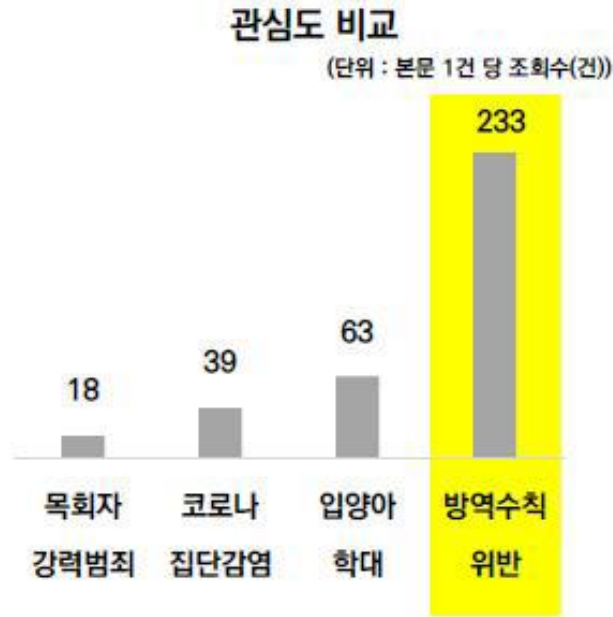


2. 한국교회 온라인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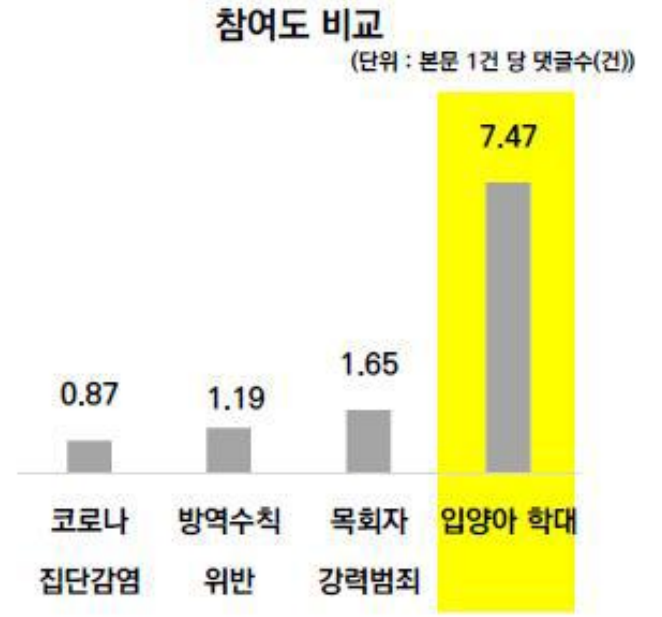
[그림] 2021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12개월 간의 총 본문수
(수집채널 :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12개월 간의 총 조회수/총 본문수
(수집채널 : 네이버 카페)



*12개월 간의 총 댓글수/총 본문수
(수집채널 :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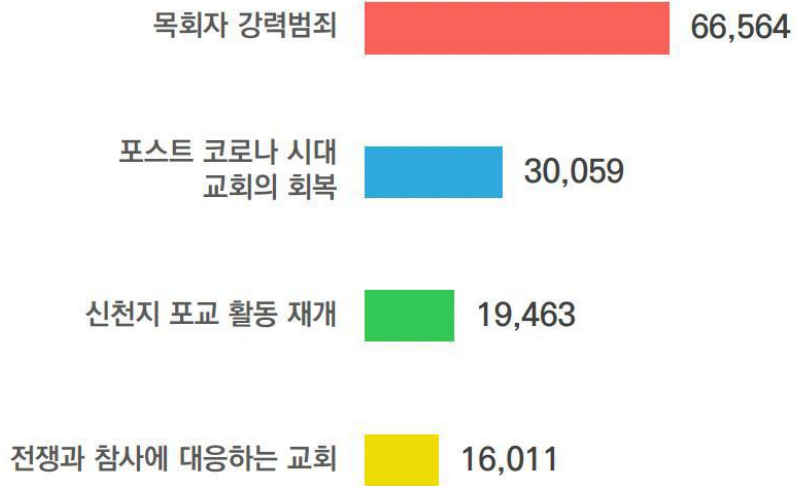
*자료 수집 여건에 따라 자료 수집 채널이 달라짐

2. 한국교회 온라인 이슈

[그림]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이슈별 본문 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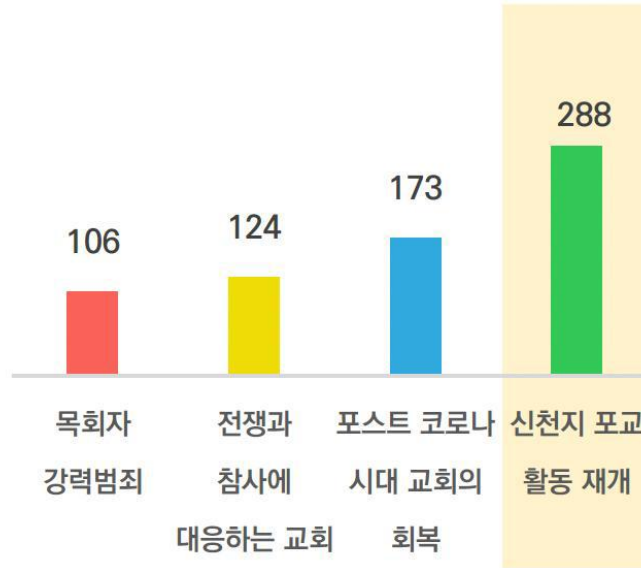
(단위 : 건)



***12개월 간의 총 본문수**
(수집채널 : 네이버 뉴스,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관심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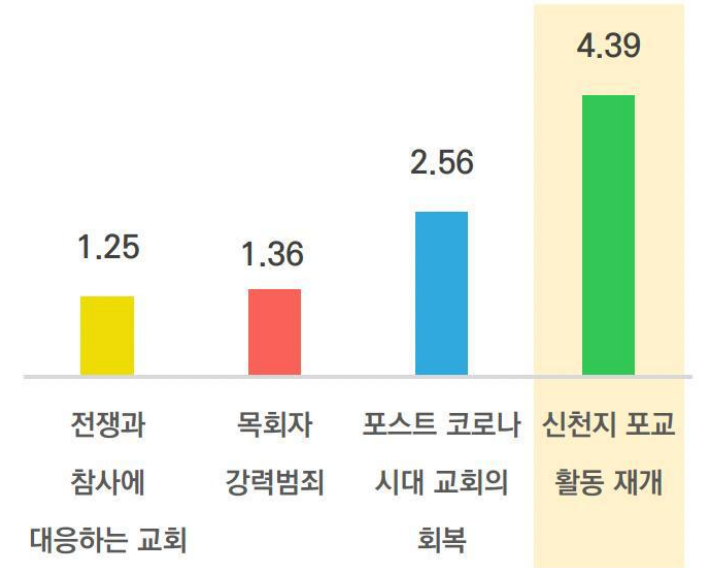
(단위 : 본문 1건 당 조회수(건))



***12개월 간의 총 조회수/총 본문수**
(수집채널 : 네이버 카페, 다음카페)

참여도 비교

(단위 : 본문 1건 당 댓글수(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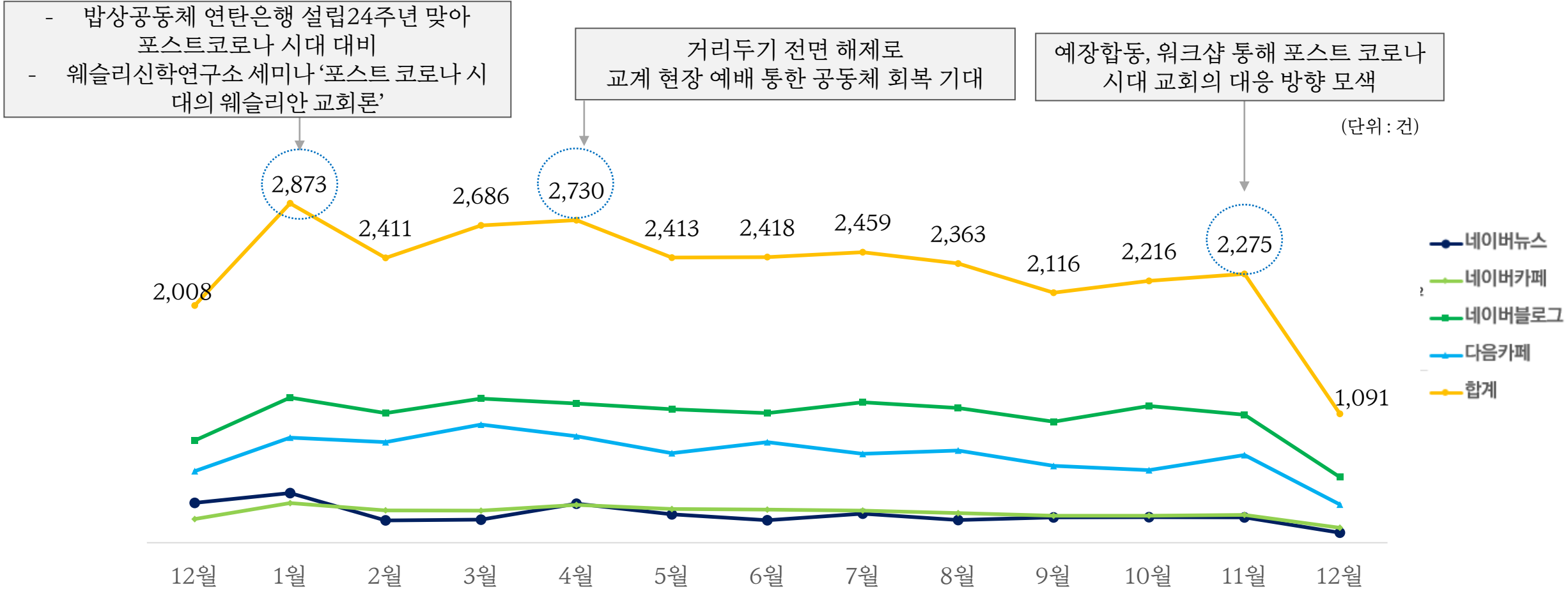


***12개월 간의 총 댓글수/총 본문수**
(수집채널 : 네이버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카페)

※ 자료 수집 여건에 따라 자료 수집 채널이 달라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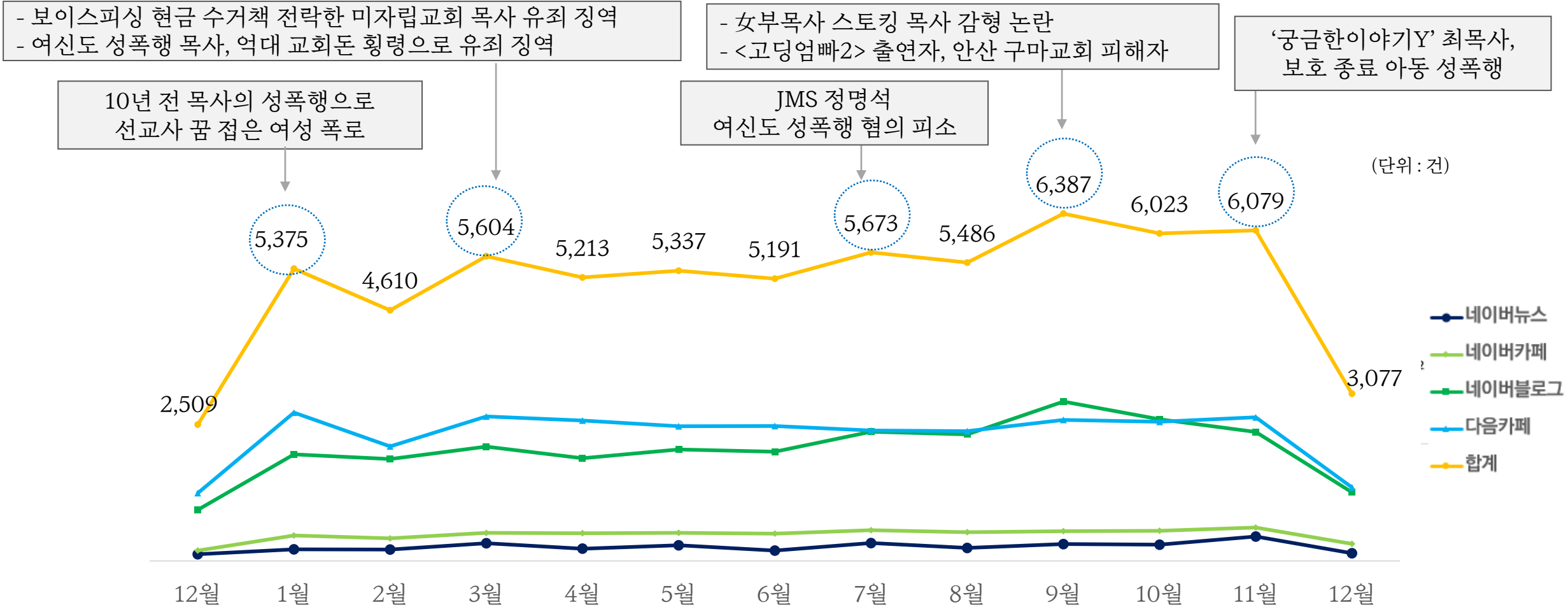
2. 한국교회 온라인 이슈

[그림]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②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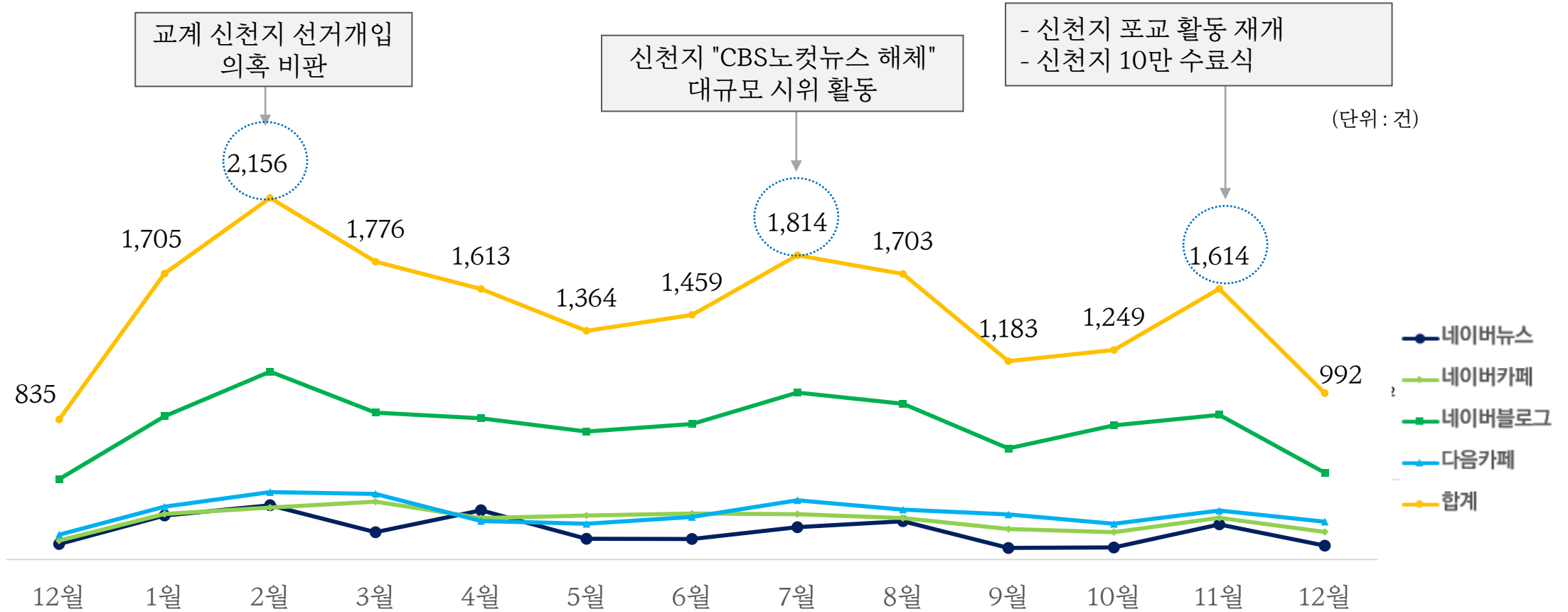
2. 한국교회 온라인 이슈

[그림]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③ 목회자 강력범죄



2. 한국교회 온라인 이슈

[그림] 2022 한국교회 주요 4대 이슈 ④ 신천지 포교 활동 재개



3. 맺는 말

(1) 한국교회 신뢰도 변화와 영향 요인

2020년 1월 31.8% → 2021년 1월 20.9%

- 코로나 발생과 감염 확산
- 신천지발 코로나 감염 확산
- 전광훈 태극기 집회와 코로나
- 목회자 강력 범죄

2021년 1월 20.9% → 2022년 4월 18.1%

- 코로나 집단 감염
- 방역수칙 위반
- 입양아 학대
- 목회자 강력범죄

3. 맺는 말

(1) 한국교회 신뢰도 변화와 영향 요인

2022년 4월 18.1% → 2023년 1월 21.0%

전쟁과 참사에 대응하는 교회

포스트코로나 시대 교회의 회복

신천지 포교활동 재개

목회자 강력 범죄



1. 부정적 이슈 가운데 새롭거나 큰 반향을 일으킬 만한 강력한 이슈가 없었다

2. 긍정적 이슈가 추가되었다

3. 맺는 말

(2) 시사점 : 교회 신뢰도를 높이려면

1. 새로운 부정적 이슈가 없어야 한다
2. 사회와의 소통 가운데 사회적 욕구를 파악해야 한다
3. 사회적 문제에서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4. 국민들이 이단과 정통 교회를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 우리를
향한 믿음으로

신하영 (세명대 교양대학, 기윤실 상임집행위원)

1. 들어가며: 운동에 조사는 왜
필요할까

- 운동을 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한국 사회에서 이미 ‘다수’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석하는 교인, 목회자 혹은 신앙인이다. 그만큼 표본(샘플)의 편향성이 크다
- 박제된 상태로 우리가 ‘교회 밖 사람들’ 혹은 ‘(보통은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를 뜻하는)지금 교인들’이라고 대상화하는 집단이 아니라, 살아 숨쉬며 교회를 바라보고 실망하고 비판하고 기대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 이 조사는 그나마 날 것 그대로의 사회의 목소리를 듣게 해줄 수 있다; 강제적으로 이 샘플들이 한국사회의 축소판으로 보일 수 있도록 했다는 의미다. ‘
 - 평소에 만나는 편향된 집단의 이야기 말고
- 우리가 우리의 의에 취해서, 우리 주변인들의 기대와 지지에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는 날것의 현실을 ‘그나마’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 **운동(movement)에는 조사(survey)가 필요하다.**

2. 우리의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

- 이 발제문은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독교인이 믿는 것, 기독교인의 신념에 대한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다.
- 우리의 믿음은 조작적으로 우리가 신념대로 행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으로 정의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응답 결과를 통해 한국교회가 나름대로 ‘성경대로’ 실천하고 있는 사회적 활동, 교회활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 하지만 사회에서 종교가 해야 하는 역할이 경제 부흥은 아닐 것이다. **교회를 향한, 교회에만 요구되는 역할과 기여하는 바가 있고 이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지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고 현재 한국기독교의 사회적 기여 정도에 대한 인식을 바라보면/ **일차적으로 개인이 종교를 가졌을 때 본인/타인이 기대하는 효과가** 아주 희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 ‘도덕과 윤리를 고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70.0%가 부정적 응답을 했고, 개인적 차원의 청렴함을 위한 ‘부패 방지’를 하고 있는가는 부정적 응답이 80.0%에 달한다
- 기독교 사회운동, 기윤실 운동이 **금융자본주의와 기회주의에 뒤떨어진 세상에서 부정부패와 무임승차를 지양하는 삶의 가치를** 이야기 하는 것을 간과해 왔다

- 우리의 믿음, 곧 우리가 믿고 생활하는 모습이 더 나아지기 위한 세상의 기대는 이어지는 질문, "기독교인(개신교인)이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응답과 연결지어 해석되어야 한다
- 기독교인에게 기대하는 부분도, 실망하는 부분도 집단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 남성들은 '나만 옳다는 자세'(28.2%)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은 것과 달리 여성들은 '정직하지 못한 언행'(21.2%)을 더 큰 문제로 꼽았다. 연령대별로 보았을 때, 30대는 '이기적 태도'(25.4%)를 꼽았지만 60대 이상은 '정직하지 못한 언행'(23.9%)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 한국사회가 교사를 향해 가지는 인식에 대한 최근의 보고 결과와 매우 닮아 있음

-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마 22:27)와 함께 주어진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8)를 어떻게 동시에 추구할 것인가
- 내 몸이 사랑할 이웃의 눈과 마음이 향하는 곳에 교회가 있었어야 했고 그게 두 번째 계명이고, **기독교인에게 교회에게 사회가 바라는 바(지금까지)**

3. 우리를 향한 믿음에 대하여

- 다음으로 다룬 것은 ”우리를 향한 믿음“이다. 여기서 우리는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와 보다 구체적인 한국교회의 구성원
- 이 조사결과는 얼핏 한국교회가 보수적이니, 보수적인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한다, 라고 생각하게 한다= 기독교는 ‘보수면서 계급적 우위에 있는, 그야말로 기독교의 종교’
- 신뢰와 동조는 다르다. 반대의 명제도 성립한다. 주장/입장에 대한 불신이 곧 그에 대한 반대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한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20대에서 기독교 전반적 신뢰에 대해서 긍정 응답이 20% 수준으로 나왔고 이것은 30대와 50대 보다 높은 비율이었다는 점
- 더더욱 우리가 교회를 향한, 교회 구성원을 향한 청년들의 시각을 지금처럼 절망 일색이리라 생각하는 것에서 조금은 달라질 필요가 있다

- 흥미로운 사실은 기독교, 천주교, 불교, 기타 종교로 선택지를 주고 묻는 ‘가장 신뢰하는 종교’에 대한 믿음에서 기독교인들조차도 73.8%만이 ‘기독교’를 꼽았다는 것이다.
- 기독교를 선택한 집단 중 여성의 비율이 낮다는 점+ 기독교인 남성 97명 중에서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경우는 72.2%에 불과(기독교 여성 89.8%)

- 청년여성이 교회를 떠난다, 라는 우리의 위기의식도 지금보다 날카로운 문제의식이 될 필요가 있다.
 - 한국교회 내 성범죄 상황이 워낙 심각하고, 교회 내 성차별적 관행과 고정된 성역할에 따른 직분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 매우 높다보니 우리도 모르게 '교회 내 젊은/청년여성들은 교회에 불만이 원래 많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 20대까지는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여성들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30대에 한자릿수로 곤두박질 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있는 논의와 추가적인 질적 인터뷰 등을 통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4. 나가며: 외면할 수 없다면 적
극적으로 들여다보자

- 이런 성격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사회적인식 조사 결과를 마주하는 태도가 방어적이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 교계에서는 침소봉대다, 일부분을 과대 해석한 것이다, 라고 깊이 들여다보고 분석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원치 않았다고 해도 외면할 수는 없다.
- 대부분의 진실이 가지는 속성이다. 외면할 수 없다면, 아파도 들여다보아야 한다. 뼈아픈 진실 뒤에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 있기 때문이다.
 - 뼈 아픈 진실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손발 걷어붙이고 '운동'할 지점이 더 눈에 들어오리라 기대해 본다.

감사합니다.

의견 및 문의: edustella@daum.net